

성도의 빛

2/3
1985



International Magazine © 1985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교회 잡지인 성도의 벗은 엔사인, 뉴 이라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

스펜서 더블류 김블, 매리온 지 롬니, 고든
비 힝클리

십이사도 평의회 :

에즈라 태프트 벤슨, 하워드 더블류 헌터,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팩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엘 톱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고문 :

엠 러셀 벨라드 이세, 로렌 시 던, 랙스 디
피네가, 찰즈 에이 디데이, 조지 피 리

통 권 : 제234호, 제21권 제2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바-1135

발행일 : 1985년 2월 1일(겨울간지)

발행인 : 서 원

편집인 : 김 영 철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시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010041-31-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STOCK NO. PBMA0540KO PRINTED IN
KOREA 2~3/85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
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표지 설명: 유태 화가인 엘 라운즈가 그린 오하이오 컬럼랜드 신전. 1979년도 수채화 작. 오늘날의 역사적인 교회 유적지 모습에 관한 세 부분의 포토 에세이가 이번 호부터 시작된다.

차 례

- 1 하나님의 자녀.....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 6 물몬경 심층 연구: 제1부.....존 엘 소렌슨
- 19 초등협회 : 선을 위한 군대.....드웬 제이 영 본부 초등협회 회장
- 21 “하나님의 주신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 25 거룩한 율법의 적용.....마빈 케이 가드너
- 30 병 속의 독수리.....크레이그 제이 스미스
- 32 비행기 추락.....스티븐 알 애플렉
- 35 오늘날의 그 모습.....교회 역사와 관련된 장소 카메라 탐방
- 41 나를 방문하는 이웃.....노니 길버트
- 42 심심풀이
- 44 사냥꾼들.....엘마 제이 예이츠
- 48 우리는 성장하여 부모처럼 됩니다.....팻트 그래햄
- 50 교회 및 지역 소식

하나님의 자녀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이 메시지는 1976년 2월 28일에 전하신 말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찬송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사를 주의를 기울여 읽노라면 수많은 생각이 마음을 스쳐갑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 난 세상에 보내, 부모와 함께 살도록, 가정을 주셨네.

난 하나님의 자녀, 나 비록 어려도, 말씀해 주신 복음을 알게 해주소서.

난 하나님의 자녀, 당신 뜻 행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축복이 크도다.

후렴
길을 찾아가게 저를 도와 주소서
주와 함께 살도록 가르쳐 주소서
(다 함께 노래를 B-76)

나오미 랜돌이 이 아름다운 노래의 가사를 썼을 때 마지막 문장을 “내가 알아야 할 것을 모두 가르쳐 주소서.”라는 의미로 작사했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이 이 가사를 읽으시고 “언젠가 주와 함께 살도록 알아야 할 것을 해야 할 것으로 바꾸도록 제안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노래의 개념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행한 유명한 연설에서 아멘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행17:28) 현대에 와서는 교리와 성약 76편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를 통하여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지상에) 사는 주민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이라.”(24절) 나는 가끔 우리가 그 단순하고 간결하고 참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하는 궁금증을 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육신이 지상의 아버지 어머니의 소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노래하거나 말할 때 정말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주님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우리 인간은 영혼이라고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이중 존재이며 이중이란 두 개를 의미합니다. 이중 물체는 두 부분으로 만들어진 물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 영혼으로서 두 부분 또는 두 지체-영체와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영체와 육체로 되어 있나니.”(교성 88:15)라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생”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영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몽경에서 아직 육체를 받지 않은 영의 형태와 본질에 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더서에 있는 이 기사는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경전 가운데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내지는 진리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야렛과 그의 친지들이 바벨탑으로부터 주님의 인도를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양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대양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8척의 배를 지었습니다. 항해할 준비가 되었으나 그 배는 사방이 막혀 있었으므로 안이 캄캄했습니다.

그리하여 지상에 살았던 그 누구

못지 않은 신앙을 지녔던 사람인 야렛 동생은 주님에게 빛을 주시도록 간구하였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내가 이 문제에 관하여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렛 동생은 어떤 바위에서 16개의 돌을 잘라 내었습니다. 그는 이 돌을 산으로 가져 갔습니다. 나는 언제나 이분이 16개의 돌을 갖고 외로이 산에 올라가 있었을 것을 생각할 때마다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거기에 손을 대시고 빛을 내게 해주시도록 간구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이 돌을 배 안에 놓아 돌 작정이었습니다.

야렛 동생의 신앙이 너무나 훌륭하였으므로 주님은 “그의 손을 퍼서 그 손가락으로 돌을 하나씩 만지시니라. 이때에 야렛의 동생의 눈에서 막이 걷혀져 저가 주의 손가락을 보니, 살과 피가 도는 사람의 손가락 같았더라. 야렛의 동생이 두려움에 질려 주 앞에 쓸어졌느니라.

“이에 주님께서 야렛의 동생이 땅바닥에 쓰러짐을 보시고 주가 저에게 이르시기를, 일어서라, 어찌 네가 쓰러지느냐? “이에 저가 주께 이르기를, 내가 주의 손가락을 보고, 나를 치시지 아니하실까 하여 두려워하였나이다. 주께서 살과 피를 가지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음이니이다.

“이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르시기를, 네가 가진 신앙으로 인하여 창창 내가 살과 피를 갖게 될 것을 내가 보았나니, 사람이 일찍이 너만큼 두터운 신앙으로 내 앞에 나아온 일이 없었으며, 그러한 신앙이 없었다면 네가 나의 손가락을 보지



못하였으리라. 네가 이제 손가락
이외에 무엇을 더 보았느냐.

“제가 대답하되, 아니오니다, 주여.”
그런 후에 야벳 동생은 더 큰 용기를
보였습니다. “당신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이에 주가 저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가 이를 말을 믿겠느냐?

“저가 답하기를, 그러하나이다.
주님이시여 당신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줄 제가 아는 것은,
당신은 진리의 하나님이라 거짓말을
하시지 아니하심입니다.

“저가 이같이 말하자, 보라 주가 저
앞에 친히 보이시며 이르시기를, 네가
이 일을 아는고로 타락으로부터
구속되었느니라. 그리하여 네가 다시
내 앞에 돌아왔으며 내가 너에게 나를
보였느니라.

“보라 나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나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예비된 자라.”

이 일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기 약 22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산 위에서 야벳 동생과
함께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나로
인하여 나를 믿는 자마다 모든 인류가
영원토록 빛을 갖게 되어, 나의
아들이 되며, 또한 나의 딸이 되리라.

“너와 같은 신앙으로 나를 믿은
자가 없기로 아직 내가 지은 인간에게
나를 보이지 아니하였거니와,”

여기에서 우리는 영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이제 내가 보았느냐?”
주님은 육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주님의 영이 이 인간 즉 야벳
동생의 형상과 같다는 사실에 이
위대한 예언자의 주의를 기울이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이제 내가
보았느냐? 만인이 태초에 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느니라.

“보라 내가 지금 보는 바 나의 몸은
영체라. 내가 나의 영체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고, 이제 내가 네 앞에
영으로 나타내어 보인 것같이 나의
백성들에게 육신으로 나타내어
보이리라.”(이더 2:25; 3:1-16)

이 기사에 나타난 위대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전세에서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구였었나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지식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 태어나기 전에
자유지와 존재와 이름을 갖고
있었던 개체로 별도의
인간이었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받은 시현에 관한 기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존재에 관하여 몇
가지 훌륭한 지식을 더해 주었습니다.

“주께서는 나 아브라함에게 창세
이전에 조직된 예지들을 보여
주셨더라. 이 모든 것 가운데
고귀하며 위대한 자가 많더라.

“하나님이 이 영들을 보시니
좋은지라. 그가 저들 가운데 서시며
가라사대 나는 이들을 나의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가 영이 된
이들 가운데 서 계셨음이라.”

여러분과 나도 거기에 있었으며 이
지상에서 살도록 정해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의 자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들(그 영) 중에 하나님 같은 신
·분(물론 구세주였습니다.)이 서
계시더니, 자기와 함께 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내려가자, 저곳에
공간이 있음이라.” 그들은 지금 이
지구가 있는 공간을 내려다보았으며
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려가자, 저곳에 공간이
있음이라. 우리는 이들 재료를 취하여
이들이(하나님의 영의 자녀) 살게 될
땅을 만들자.

“이로써(우리는 그들과 함께
무언가를 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을 시험하여 주 저희 하나님이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자.

“저들의 첫째 지체(당시에 우리가
있었던 영의 지체)를 지키는 자는
더욱 더하여질 것이요, 저들의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첫째
지체를 지킨 자들과 같은 왕국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하리라. 또 둘째
지체(우리가 현재 있는 이 지체, 이
필멸의 기간)를 지키는 자는 저희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지리라.(야브 3:22-26)

우리는 이 성구로부터 우리가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지상에 오게 되어
있었으며 그 목적은 우리가 주께서

명하시는 것을 행하는지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생인 우리 영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의 소생인 우리의
육체 안으로 들어가며 사망할 때는
영과 육이 분리됩니다. 바로 이것이
즉 영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
사망입니다. 때가 되면 육신은 먼지
또는 흙으로 되돌아가며 영은 영의
세계로 되돌아갑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영은 다시 육체로
들어가며 우리는 누구나 다시 산
영혼이 되어 우리의 영과 육신은 결코
다시 분리되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인간의 영육의 속죄니라.”(교서
88:16)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구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단계를
“개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 살 때 전세에서의 지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필멸의 상태인 이
지상에서의 생활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부활을
통하여 영혼이 불사 불멸의 상태로
재결합하는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의 세계에서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아브라함이 말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들의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더욱 더하여질
것이요, 둘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저희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지리라.”(야브 3:26)

우리는 지금 필멸의 존재로 이곳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 지체를
지켰다는 것과 또한 우리 육신이
받음으로써 더하여졌다는 것을
압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음
생애인 셋째 지체에서 “(우리)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 지”도록
어떻게 이 둘째 지체를 지켜야
하는지를 복음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이 교회에 속한 사람 이외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이 누구인가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위대하고
영원한 진리를 바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으며 왜

여기에 있으며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는 자신이 가고 싶어서 열망하는 그곳에 가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필멸의 상태에 있는 동안 우리의 지상 생활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행히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서도 수많은 진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태초에 아담에게 복음을 계시하셨다는 것과 주님이 어떤 경륜의 시대에나 복음을 계시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아담이 자신이 계시받은 복음에 관하여 자손에게 말한 다음에 그들에게 사탄이 왔다는 것을 압니다. 사탄이 “이 말을 믿지 말라 하니(저를 대부분이) 믿지 않게 되었으며.”(모세 5:13)

우리는 아담 배로부터 홍수가 있었을 때까지 에녹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알고 받아들인 백성의 도시를 세웠다는 것을 압니다. 배도한 백성들은 악, 전쟁, 피흘리는 일에 빠져 있는 동안 이 백성들은 에녹성이 지상으로부터 들리워 올라가도록 생활하였습니다.

우리는 노아가 진리를 알았으며 에녹과 노아 시대 사이에 다른 예언자들이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주님이 지상에서 악을 씻어 내고, 그 후에 온 영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홍수를 보낼 때까지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 이후의 의로운 사람들을 압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역에 관하여 압니다……그가 어떻게 절정의 시대에 오셔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의로운 생활을 하면 자신의 죄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법과 부활을 가져다 주는 큰 회생을 치르셨는가 하는 것에 관하여 압니다.

우리는 야벳인과 니파이인에 관하여 압니다. 우리는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구세주께서 오셔서 지구를 다시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또한 세 등급의 영광을 압니다. 세

종류의 불멸의 영혼 즉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의 영혼이 부활하여 일어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부활에 관하여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위하여 마련된 속죄를 통하여(그리스도의 대속을 말씀하시는 것임)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이 이루어지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은 인간의 영육의 속죄니라.

“영육의 속죄는 만물을 살게 하시는 이(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나니 세상의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가 속죄를 상속받도록 이분의 가슴속에 정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땅은 해의 영광을 받을 준비로써 모든 불의로부터 성결케 될 필요가 있느니라.

“이는 땅이 그 창조의 목적을 다한 뒤에는 영광의 관을 쓰게 될 것임이니,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로 관을 쓰게 되리라.”

이것이 이 지구의 운명입니다. 이 지구는 우리가 필멸의 생을 사는 동안 거주할 장소로서 뿐만 아니라 해의 영광을 상속받는 사람이 영원히 거주할 장소로서 만들어졌읍니다.

“이는 땅이 그 창조의 목적(필멸의 인간이 거할 장소로서의 지구를 말함)을 다한 뒤에는 영광의 관을 쓰게 될 것임이니,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로 관을 쓰게 되리라.

“해의 영광의 왕국에 속하는 자들은 땅을 영원 무궁토록 소유하리니, 이 목적을 위하여 땅은 지은 바 되었고 창조되었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저들은 성별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 곧 그리스도의 율법을 통하여 성별되지 아니한 자도 다른 왕국을 상속받아야만 하니, 달의 왕국이나 별의 왕국을 상속받으리라.

“무릇 해의 왕국의 율법(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를 수 없는 자는 해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또 달의 왕국의 율법을 따를 수 없는 자는 달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별의 왕국의 율법을 따를 수 없는 자는 별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저는 영광의 왕국에 합당하지 못하니 따라서 영광의 왕국이 아닌 왕국에 거하여야 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되고 싶어하는가에 관하여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해의 영광에 속한 영들은 육체였을 때와 똑같은 몸을 받으리니, 너희는 너희 몸을 받을 것이요, 너희 영광은 너희 몸을 살리시는 그 영광이 되리라. (부활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필멸의 육신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광은)

“해의 영광의 일부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는 자는 그와 똑같은 영광, 진실로 충만한 영광을 받으리라.

“달의 영광의 일부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는 자는 그와 똑같은 영광, 진실로 충만한 영광을 받으리라.

“별의 영광의 일부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는 자는 그와 똑같은 영광, 진실로 충만한 영광을 받으리라.”(교성 88:14-31)

우리는 말일성도로서 우리 아버지와 구세주와 모든 시대의 의인이 사는 해의 왕국에서 승명과 영생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와 의식에 응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직, 진실, 순결, 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불결한 것은 어떤 종류의 것이든 피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서 하늘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정말로 관심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적합한 방식, 둘째 지체를 지키는 사람에게 주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시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려는 사람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생활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의 잠재력이 어떠하며 그 큰 축복을 얻기 위하여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하여 좀더 잘 알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정말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우리 지식대로 생활하기 바랍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 사항.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의 육신은 지상의 부모님의 소산이며 우리의 영은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소산입니다. “인간은 영체와 육체로 되어 있나니.”(교성 88 : 15)

2. 우리는 전세에서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서 자유의지와 이름을 가진 개체였습니다.

3. 우리는 주님이 명하시는 것을 행하는지 시험받고 증명하기 위하여 이 지구에 왔습니다.

4. 사망하면 영과 육이 분리됩니다. 때가 되면 육신은 먼지로 혹은 땅의 물질로 가고 영은 영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5. 우리가 부활할 때 영은 다시 육체로 들어가고 우리는 누구나 다시 영혼이 되어 우리의 영과 육은 두 번 다시 분리되지 않습니다.

6.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방법으로, 또한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갖고 계신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토론시 유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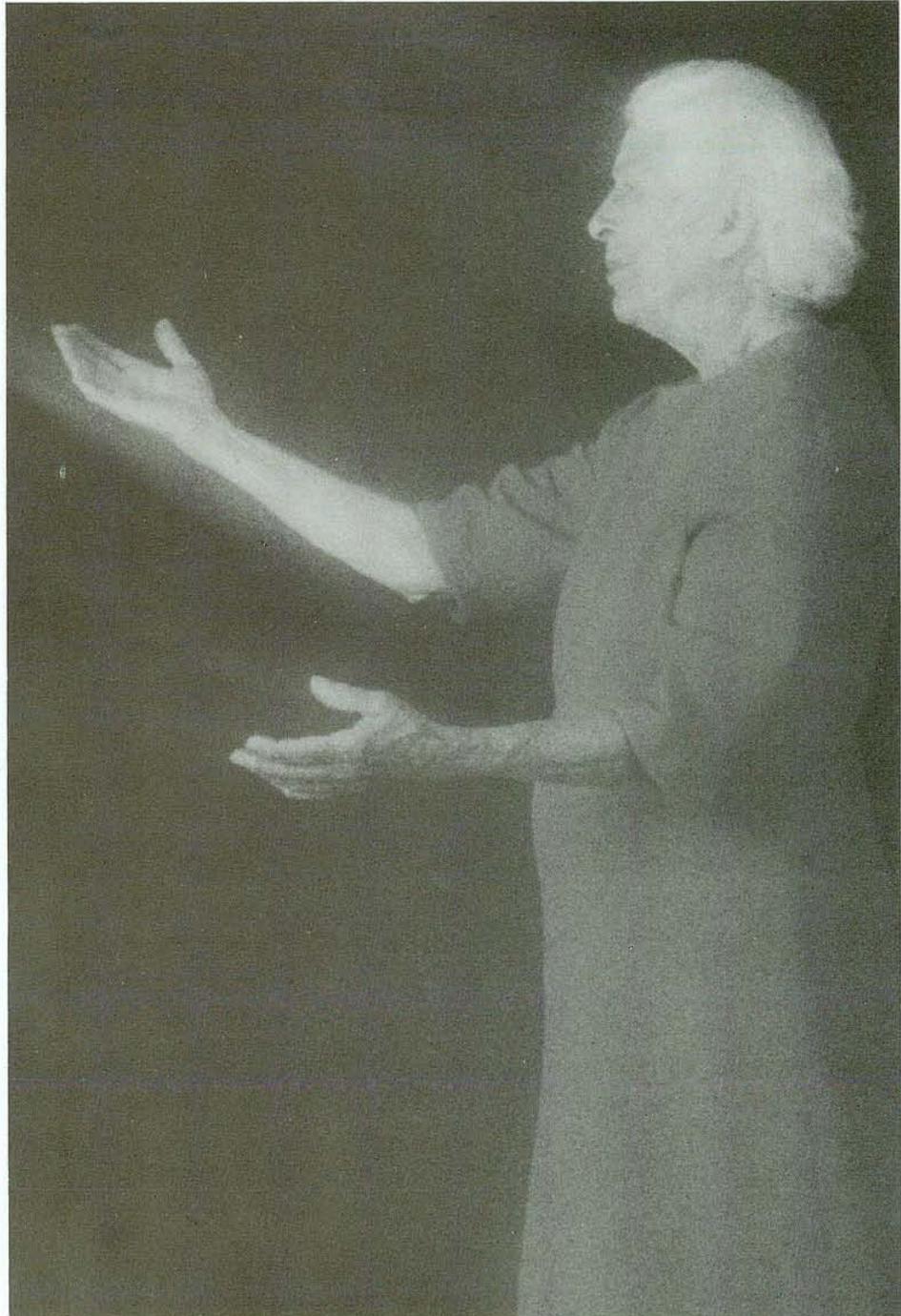
1.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관련된 자신의 개인적인 느낌이나 경험을 이야기한다. 가족이 그들의 느낌을 함께 나누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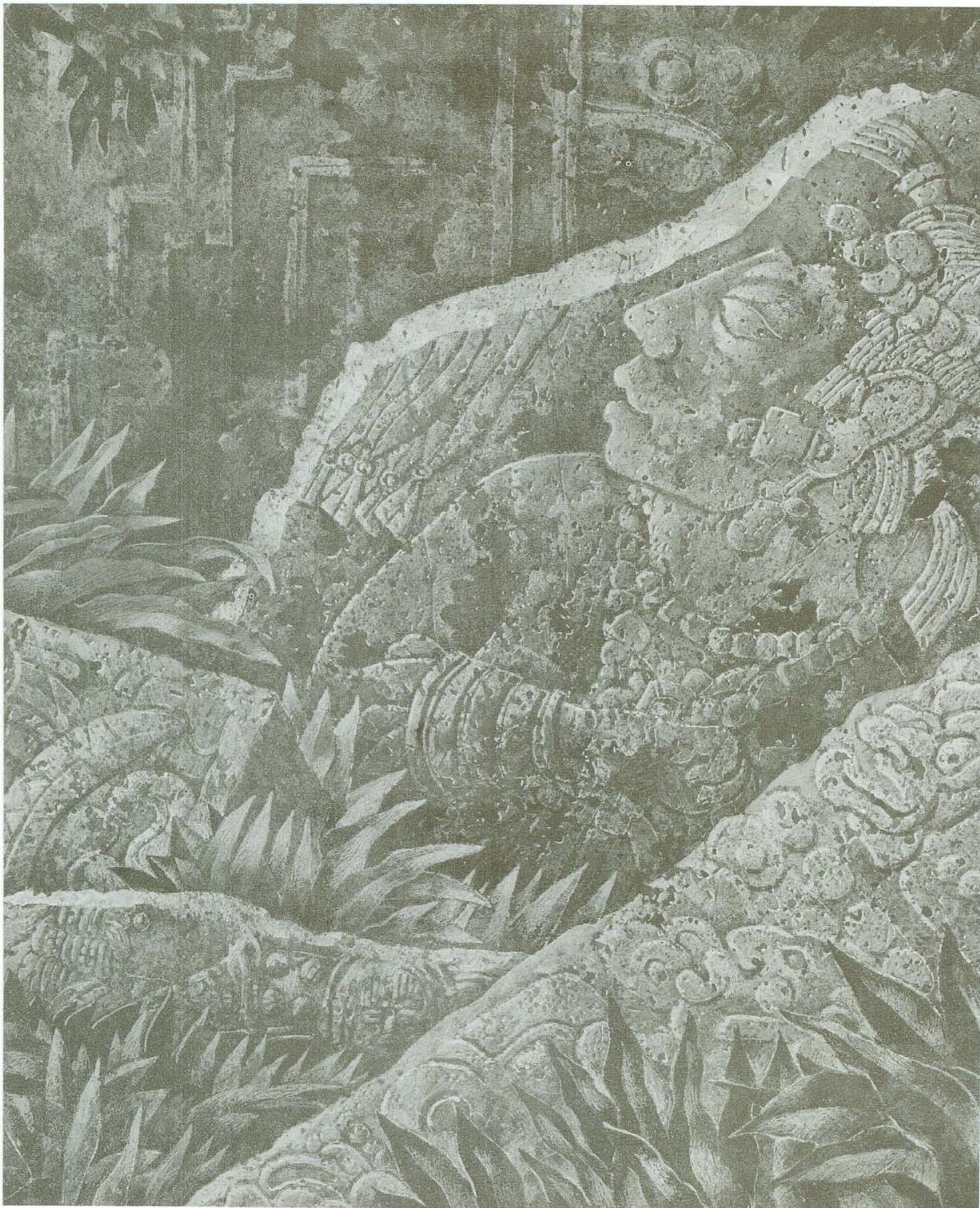
2. 이 기사에는 가족이 소리내어 읽고 토론할 만한 성구나 인용문이 있는가?

3. 방문하기 전에 미리 가장과 이야기하면 이 토론이 더 잘될까? 이 주제에 관하여 정원희 지도자나 감독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가?

이 지구는...
해의 영광을 상속받는 사람이
영원히 거주할 장소로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영은 다시 육체로 들어가며
우리는 누구나 다시 산 영혼이 됩니다.





물문경 심층 연구 : 제1부

고대 아메리카 대륙과 그 경전에 대하여 바뀌는 우리들의 이해
존 엘 소렌슨

소개

지난 수십년 동안 미대륙의 고고학, 지리학, 문화, 언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결과로서 물문경 독자 및 물문경을 믿는 사람에게 큰 흥미가 있는 엄청난 양의 지식이 주어졌으며 이전에 물문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러한 지식이 존재하고 있다고는 상상하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물문경에 관련된 특별 연구는 그 양과 질의 면에서 오늘날 너무나 광범위하고 심오하여 혼자서 그 학문적 연구의 모든 면을 다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실상 지난 50년 동안에 콜롬부스 이전의 미대륙 문명에 관하여 이전 세대의 사람들이 생각하였던 것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이미 낡은 것이 되어 버렸다. 고대 문명을 연구하는 과학도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금세기 초 수십년간 과학은 영구적이고 결합이 없는 진리의 탐구와 발견으로 생각되었다. 오늘날 과학자 및 철학자들은 자신의 일의 성격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론과 통계를 정규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1/ 과학을 “잠정적이고 영원”/2/으로 보는 칼 포퍼의 견해가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단 반세기 전에 있었던 미대륙의 고대 문화에 관한 지식보다 현재 천 배가 넘는 지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날 가장 훌륭한 학자일지라도 유럽인이 오기 전의 신세계(미대륙)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자 할 때 그렇게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고집하지는 못한다.

또한 말일성도들이 물문경에 대하여 갖고 있는 생각도 일부 변화하였다. 니파이로부터 모로나이에

이르기까지의 선지자들이 가르친 구원의 원리에 관한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다. 만일 변한 것이 있다면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경전이 고대 문서라는 점에서 주의깊게 연구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엠 웰즈 제이크먼, 휴 니블리, 시드니 비스페리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더 커지는 말일성도 조사자들은 1940년 중반으로부터 이런 상세한 내용의 일부를 찾아내기 시작하였다. /3/ 새로운 가능성을 보는 이런 관점의 변화의 예는 겨우 15년 전에 존 더블류 웰치가 물문경에 치아스무스라고 불리는 근동 문학 형식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이것은 1830년에, 출판된 지 거의 140년이 지나도록 독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다. /4/ 최근 수년 동안에 다른 연구자들은 그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사실과 패턴과 의미를 찾아내고 있다.

많은 말일성도들은 최근의 연구가 고대 문서로서의 물문경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을 말하여 주는 자료를 그 동안은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진보된 과학의 방식에 의하여 밝혀진, 물문경을 뒷받침해 주는 좀 놀라운 새로운 발견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기사와 다음에 나오는 기사의 목적은 일부 말일성도 학자들이 새로운 이론과 발견에 입각하여 물문경을 보는 관점이 과거와 어떻게 분명하게 달라지고 있는가에 관한 몇 가지 예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본 기사는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며, 내 자신이 연구해 본 결과,

충분히 고려해 볼 가치가 있는 새로운 내용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제1부

문 문경의 고고학은 오랫동안 말일성도들의 최대 관심사의 하나였다. 이 두 가지 말이 모두 제목에 들어 있는 강연회에는 언제나 상당한 청중이 모이곤 했다. 불행히도 일부 저자와 강연자들은 이 주제에 관하여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이 주제에 관하여 가끔 언급하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조차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는 의도, 신념, 간증의 문제가 아니라 학문으로서의 문제이다. 물문경을 고고학 및 관련 분야의 발견과 비교하는 것은 학문적, 지적 활동이다. 말일성도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이런 학문적인 분야의 일을 시작할 때는 이 분야를 지배하는 규칙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

첫번째로 필수적인 것은 물문경의 본질을 결정하고 그 중 어느 부분이 학문적인 발견과 비교하기에 적절한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고고학자 및 다른 학자들이 실제로 어떤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의 지식의 한계를 정하는 조건을 어떻게 정할가를 정해 두어야 한다. 가장 단순한 결론이라도 합당하게 끌어내려면 이 문제의 양쪽 면을 모두 조심스럽게 고려하여야 한다.

일부 말일성도 작가와 강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한 가지 문제는 물문경의 실제 원문과 물문경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혼동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문경은 “아메리카 인디언의 역사”라는 말을 흔히 듣는다. 이 말에는 자세히 조사하지 않은 수많은 가정이 담겨 있다. 즉 이 경전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과거의 한 민족이나 국경내에서 일어난 중요한 여러 가지 사건을 조직적으로, 또한 연대적으로 기록한 기사이며 이 아메리카 인디언은 하나의 단일 그룹이며 이 경전에서 역사적 및 문화적 자료를 담고 있는 약 1백 페이지의 본문이 이 대륙의 모든 역사를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만일 이와 같은 잘 연구하지 않은 추측을 바탕으로 할 때

비판자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을 보여 고대 경전의 본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에 관하여 추측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공격하게 된다.

그 결과 부적절한 “증거”, 믿을 수 없는 논리, 모순된 결론 등에 의하여 물문경에 관한 혼란된 지식이 야기되는 것이다. 말일성도들이 비교한 것 가운데는 성구 분석과 고고학적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모두 잘못된 것이 많이 있었다. 반면에 이렇게 비교하려 했던 일부 전문적인 고고학자들은 다음 두 가지 면에서 흔히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 (1) 그들은 물문경 그 자체 즉 물문경에서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 (2) 그들은 고고학적인 내용을 올바른 시기라는 관점에서 또한 고대 미대륙에서 가장 가능성이 많은 지역에서 합당하게 다루지 않았다. 사실상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여러 사건과 인물들을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사를 한 것은 지난 몇 년밖에 되지 않았다.

물문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현재 수준까지 끌어올림으로써 그 책에 관한 탐구의 범주를 넓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당시에 교회에서 가장 예리한 지성인의 한 사람이었던 비 에이츠 로버츠의 일부 기록이 이것을 잘 예시하고 있다. 주로 1922년에 행하여진 몇 가지 저술에서 그는 뉴 잉글랜드의 에던 스미스 목사가 쓴 *히브리인의 견해*라는 제목의 100년이나 된 로맨스 소설을 물문경과 비교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일부 비판자들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스미스의 이 소설을 물문경의 자료로 사용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로버츠 장로는 그 견해와 당시에 고대 미대륙의 백성과 문화에 관한 학술 서적을 모두 조사하고 그것을 물문경과 비교하였다.

불행히도 당시에 고대 미대륙 문화에 관하여 참되다고 생각했던 것이 불완전하고 때로는 부정확한 지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 그때부터 입증되었다. 예를 들어 로버츠 장로는 그의 연구에서 물문경이 서반구 전체의 역사라는 당시에 널리 퍼졌던 일반적인 개념을

사용하였다. 두 가지 면에서(적절한 학술적 자료에 관한 지식 및 물문경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분석함) 모두 물문경에 관한 그의 추측 가운데 일부가 그릇되었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다.

고고학자들이 물문경을 비판하는 것 가운데 가장 널리 퍼진 두 가지 말은 (거의 십년 전의 고 로버트 와우츠프의 책 및 마이클 코우의 기사/5/) 비슷한 한계점에 봉착하고 있다. 이 두 저명한 학자는 모두 물문경 기사는 신대륙 전체를 통털어 모든 아메리카 인디언이 포함된 사건에 관한 것이라는 똑같이 불행한 추측을 근거로 하여 물문경에 대한 견해를 결정하였던 것이다. 그들의 결론은 일부 말일성도의 결론만큼이나 과오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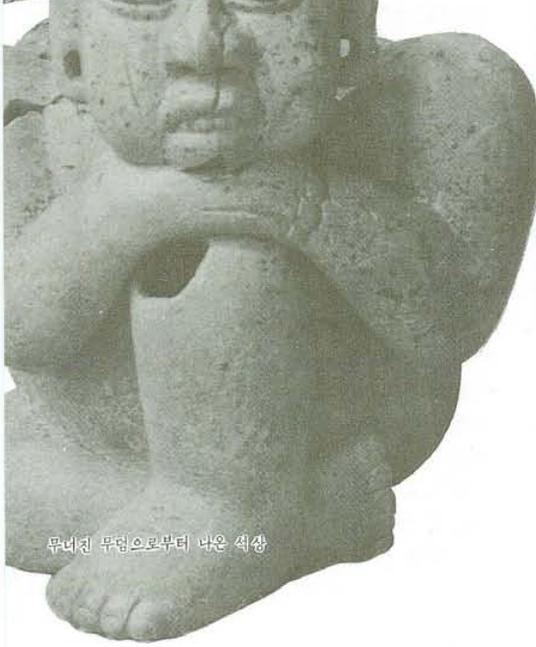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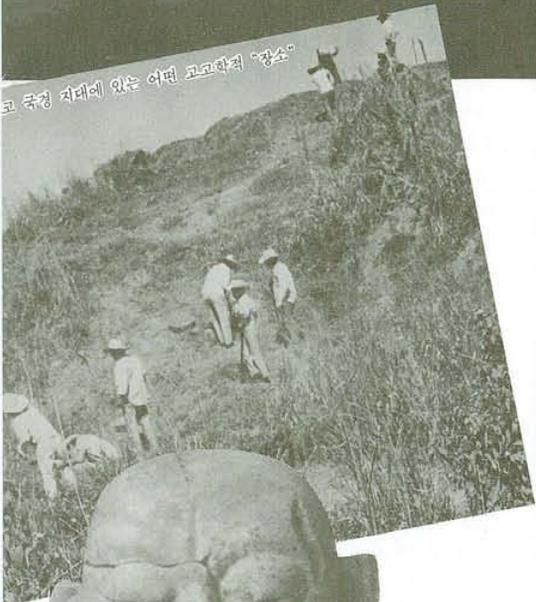
물문경을 정보가 담긴 고대 기록으로서 다른 자료와 비교하려 할 때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사실을 유도해 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바울의 서한을 마치 그것이 유대인이 사로잡혀 간 시기에 바빌론으로부터 온 것처럼 다루면서 그 서한의 주변 사항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과 같을 것이다. 고고학자들이 고대 미대륙의 역사적 상황에 관하여 알아낸 것과 물문경을 비교하려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그 사건의 위치와 시기에 관하여 분명하게 해야 한다.

니파이인과 야렛인의 땅

일부 독자는 물문경이 지도를 만들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책에 지리와 관련된 말이 많이 담겨져 있다. 이 책에 담긴 합리적인 추리를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를 주의깊게 관찰해 보면 지리에 관한 풍부하고도 일관성있는 정보가 이 책에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 한정된 지면에서 지리에 관하여 완전하게 다룰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지난 40년 동안 이것을 깊이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근본적으로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1) 니파이인 및 야렛인 서기들이 보고한 사건은 분명히 신세계 “약속의 땅”에서 한정된 지역만을 다루었다.

멕시코 오악사카의 몬테 알반에 있는 유적 사진(앞의 건물은 그리스도 시기쯤의 것이다.)



무늬진 무덤으로부터 나온 석상

것보다 좀더 한정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을 찾아냈다. 그리고 1939년에 와시번즈사가 물몬경에 있는 지리를 상세하게 분석한 것을 출판하였다. 이것을 엄밀하게 물몬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근거하였으며 그런 논리의 일관성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 경전 분석가들은 그들의 저서 물몬경 지리 연구 접근 방식을 출판한 이후로 물몬경 자체에 수록된 기록에서 좀더 많은 정보 자료를 발견하였다. 이 통계는 이 책의 사건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 직접 연관되는 땅은 길이와 넓이가 수천 킬로미터가 아니라 아마 수백 킬로미터밖에 안되었으리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8/

내가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모든 중요한 면에서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한 지역이 메소아메리카라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일치된다. 이것은 이 대륙에서 고대에 가장 높은 수준의 문화적 발달이 일어난 중부 및 남부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 북쪽 부분에 대하여 아메리카 문화 조사자들이 지어 준 이름이다. 예를 들어 경전에서는 니파이-야렛 지방의 글로 쓴 오랜 전통에 관하여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메소아메리카에서는 십 수개도 더 되는 기록 방식이 알려져 있으며 현재의 증거로만 보아도 그 중 일부는 적어도 기원전 첫 천년이 시작될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9/ 그러나 미대륙 전체를 살펴보아도 다른 곳에서는 16세기에 유럽인이 오기 전에 진정한 기록 방식과 책이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것이 현재로서는 없다. 또한 우리는 물몬경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모든 종류의 지리적 및 문화적인 특징을 메소아메리카에서 찾아낼 수 있다. 산맥, 유역, 강, “물”, 수로 “고”, “저”, “여분”, 폐허 등이 경전과 연대가 일치하여 특별한 관계를 갖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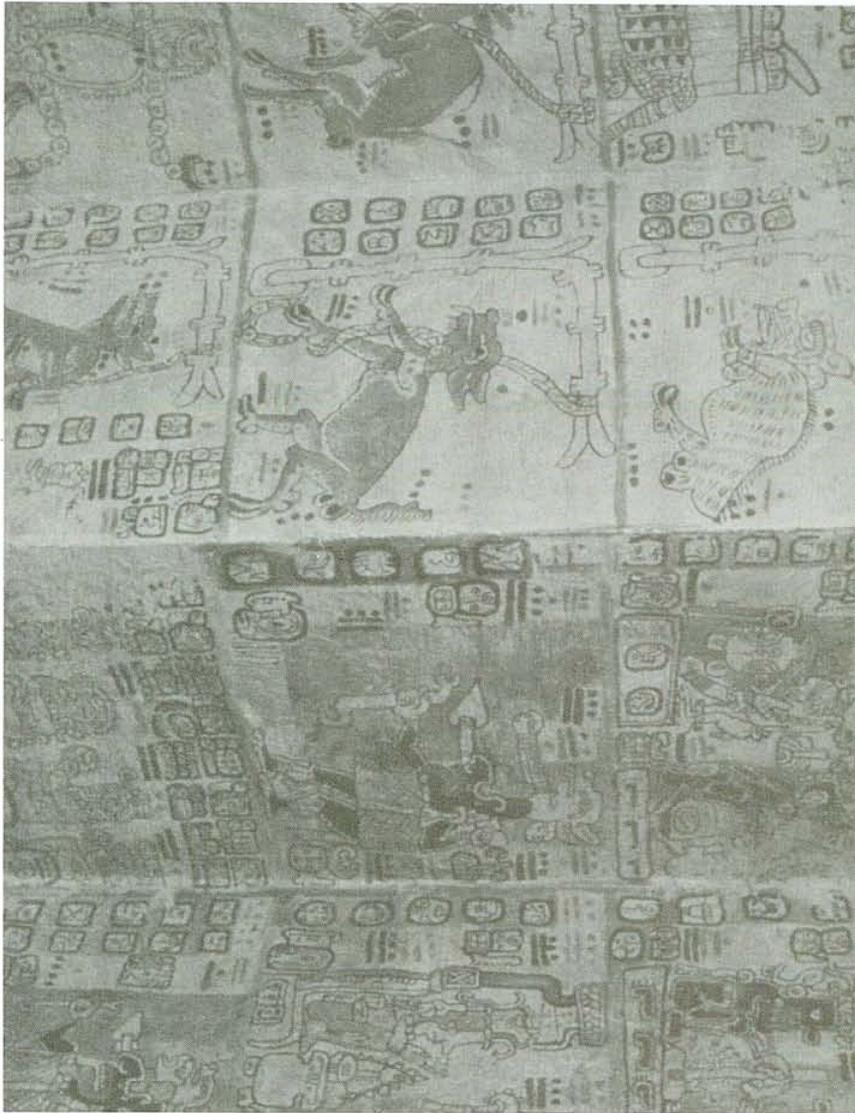
물론, 물몬경 지역을 현재와 같이 메소아메리카와 같은 한정된 지역에 배치시키려면, 물몬경 독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몇몇 오래 계속되어 온 질문을 새로운 면에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좁은 지협” 근처에 있는 마지막 전쟁터에서 얻은 니파이판이 어떻게 해서 요셉

(2) 현재 서반구에는 이 장면에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지점으로 단 한 군데밖에 알려져 있지 않다./6/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점이다. 오랫동안 물몬경의 배경이 남북 아메리카 전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았다. 지리는 너무나 분명한 것같이 즉 북쪽으로 뻗은 대륙과 좁은 지협에 의하여 연결된 분명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결국에는 새로운 지식에 비추어볼 때 물몬경에 언급된 땅에 관한 그런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워졌다. 예를 들어 이십세기 초가 되었을 때 구라파인이 신세계를 발견할 당시에 신세계에는 1,500개나 되는 언어가 있었다는 것이 조사 결과 나타났다./7/ 그리고 언어의 정체 및 변화 과정에 관한 새로운 지식으로 인하여 그 모든 언어가 나파이인과 레이맨인의 언어로 생각되는 히브리어로부터 파생될 수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고고학에서는 문화가 굉장히 다양했다는 것을 밝히기 시작하였으며 미대륙에 수많은 무리가 살았다는 개념을 더욱 보강시켜 준다.

1900년대 초기에 이미 일부 성도들이 문제에 관하여 실제로 물몬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더 주의깊게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거기에서 그들은 야렛인 및 니파이인 역사의 장면은 그 이전에 추측했던

물문경에서는 니파이-야렛 지방의 글로 쓴 기록의 오랜 전통에 관하여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메소아메리카에서는 한 타스도 더 되는 기록 방식이 알려져 있으며 현재의 증거로만 보아도 그 중 일부는 적어도 기원전 첫 천년이 시작될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미대륙 전체를 살펴보아도 다른 곳에서는 16세기에 유럽인이 오기 전에 진정한 기록 방식과 책이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것이 현재로서는 없다. 그러므로 고고학은 그 자체의 한계성이 있으므로 고고학자들은 비록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이 발견한 한정되고 막연한 통계에 의거하여 합리적인 추론을 해야 한다. 고고학자 고대 생활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거의 무지한 상태에 있다. 왜냐하면 그릇 조각, 돌 조각, 부서진 벽을 근거로 하여 신조, 사회, 구조 및 개성에 관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서기든 고고학자들은 땅에 버려진 모든 증거 가운데 작은 일부분만 찾아내기 때문에 고대에 존재하였던 것과 존재하지 않았던 것에 관하여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는 것이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3가지 계속해서 나타나는 마야 책 가운데 하나, 드렌스덴 코덱스.

오랫동안 메소아메리카 학자들은 이 지역에서는 서기 900년경의 고대가 끝나기 전에는 금속 가공은 알려져 있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물문경에서는 니파이인과 야렛인이 금속을 사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 역사 언어학에서는 주전 1천년 이전에 고대 메소아메리카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언어에서 금속이 알려져 있었고 사용되었으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스미스가 뉴욕주에서 그것을 얻은 곳까지 가게 되었는가? 물문경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암시도 제시하지 않는다. 한 가지 분명한 가능성은 모로나이가 니파이인이 멸망되고 그가 마지막으로 판에 기록한 사이의 36년간의 방랑 기간 동안에 뉴욕주로 몸소 그 기록을 가져왔을 것이다. (물문서 6:6; 모로나이 1:4-4; 10:1) 아니면 그가 부활된 후에 가져왔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만, 1827년에 그 판을 뉴욕주 팔마이라에 있는 요셉 스미스의 집 근방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있었으며, 그곳에서 모로나이가 성스런 기록을 그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물문경의 지리, 언어, 문화, 인종적 병합, 그밖에도 비평가들이 경전에 대하여 제기한 “문제점”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한정된 규모의 유사성을 알게 되면 전혀 다른 면에 접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로 메소아메리카 지역에서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는 물문경과 더불어 그곳의 문명 및 지리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자료를 찾아보아야 한다.

기록의 성격

물문경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이것이 오늘날 흔히 사용되는 의미에서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 구약전서처럼 선지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주로 한 가족의 연대기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물문경은 중요한 여러 가지 면에서 “혈통 역사”의 성격을 띠운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극적으로 좀더 물론경과 일치하도록 변한 주제의 한 가지 좋은 예가 전쟁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메소아메리카에 관한 전문가의 견해는 고대의 절정의 시기에는 평화로운 사회만 존재하였다는 것이었다. 1970년대에 유카탄 반도의 베칸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곳의 중심은 원둘레가 거의 2킬로미터나 되고 폭이 평균 16미터나 되는 호에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요새를 쌓는 것은 엘마서 49장 18절부터 20절 사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흡사하게 보인다.

이런 종류의 문서는 어떤 무리의 기원, 그들이 주님의 선택을 받게 된 이유, 그들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건, 그 권력 체계의 기반이 된 현장, 다른 집단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엄선한 지식을 제공해 준다. 한 혈통은 그들의 경계를 정의 내리고 그 권력을 보강하고 사회 구조를 안정시키고 또는 그 자체 구성원에게 그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기 위하여 이런 종류의 역사적인 기사를 이용한다.

고대 문명과 족속에 관한 대부분의 역사는 문서로 되었거나 구전으로 전해지거나 이런 종류의 것이었다./12/ 그들은 전체 지역에서 “발생한 일”을 총괄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밝히지는 않는다. 사실상 한 혈통이 어떤 땅을 완전히 독점하여 지배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아브라함의 경우처럼) 그들은 우리 대부분이 합당한 역사 주제로 생각하는 정식 국가의 체제를 갖추었거나 혹은 갖추지 않았거나 비슷한 다른 집단과 나란히 존재하는 한 사회의 한 부분의 골격을 갖추고 있었다.

예를 들어 구약전서에 있는 족장 시기에 관한 기사는 어떤 특정 혈통의 기록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주로 그 혈통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대한 진리를 담고 있다. 구약은 아브라함이 북쪽 메소포타미아로부터 가나안으로 그리고는 애굽으로 이주한 것을 서술하고 있다. 그의 가족은 이 기록에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은 다른 백성 및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우르, 룯, 아비멜렉, 고모라, “다섯 임금.” 멜기세덱은 간략하게 다루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본질적으로 이 장면의

일부이며 이스라엘이 어떻게 왜 그 약속된 땅에서 그 위치를 차지했는가 하는 기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을 도와 주는 무대 위의 조연적 기능에 가깝다.

니파이인과 야렛인의 기록은 모두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니파이 혈통의 마지막 서기인 모로나이가 기록을 정리하고 묻은 것은 자기 주변에 더 이상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니었다.(물론 8:1-9; 모로 1:1-20 참조) 그런 사건은 그가 속한 집단의 역사의 일부분이 아니었을 따름이다.(물론 이 기록을 끝내고 인봉하는 데는 더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었다. 모로 1:4, 표제지 참조) 그러므로 제이라헤틀라 백성 또는 우리가 “물렉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니파이인보다 훨씬 숫자가 많았는데도 물몬이 요약한 기록에서는 그들을 외면해 버린 사실이 분명해진다.(모사 25:2-3 참조) 마찬가지로 이더도 자기 조상을 감옥에 넣고 그들을 왕좌로부터 쫓아낸 그 왕위를 찬탈한 지배자들(아마도 경쟁하던 혈통에서 나온)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사실상 이더서에는 그들의 이름조차 언급하고 있지 않다.(이더 10:30-31; 11:17-19 참조) 야렛 혈통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면에서 이 고대 미대륙 주민의 기록의 주제는 그 기록을 지키는 중심 가족의 운명에 관한 것이었다. 때때로 다른 사람들도 언급이 되었으나 그것은 그들이 중심 연극에 필요한 장면과 가구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었을 따름이다. 심지어는 여러 세기의 기간도 무시당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니파이나 야렛의

후손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고고학의 한계

그러므로 물론경 기사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국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기사는 일반적으로 지배 혈통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배 혈통은 고고학에서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청동 시대 애굽의 유명한 히소스 왕가나 많이 이야기되는 천년 전의 멕시코의 톨텍 통치자도 이론적으로 유적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다./13/ 현재 메소아메리카에서 얻을 수 있는 고고학적, 언어학적 및 역사적 증거의 본질로 인하여 사람은 고사하고 특정 집단(니파이 혈통 등과 같은)을 알아내는 것은 어렵다. 이런 문제는 고대 문명에 관한 역사적 조사에서는 언제나 따라다닌다. 전문가들은 여호수아 시대 및 그 이전에 여러고 주변의 이스라엘 침략자들의 정체에 관한 논쟁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14/ 요르단 주변에 “이스라엘인이 여기를 건넜다.”고 말하는 기념비는 하나도 없다. 또한 이집트의 어디를 가도 센땅의 위치를 알려 주는 표식은 없다. 오히려 우리는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것과 관련되는 것같이 보이는 풍습이나 정착 형태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해석은(예를 들어 “이 지층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종류의 도자기는 당시에 히브리인이 들어오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것임에 틀림없다.” 등) “사실” 그 자체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학자들은 어떤

기록이나 구전이 물리적인 유물과 일치한다는 가정을 한다. 다른 학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은 그런 가정을 가혹하게 공격할 수도 있다. 파테말라 고지대에서 나온 어떤 혈통의 역사인 포폴 부는 약 600년 전에 그 땅을 정복하려 온 소규모 전투원들의 침략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들은 멕시코의 문화 양식을 갖고 있었다.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은 중앙 폴리네시아로부터 카누를 타고 온 것으로 생각되는 소수의 백성의 후예라고 주장한다. 이 두 가지 구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통계는 이 사실을 막연하게 확인해 줄 따름이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에는 의문의 여지가 많으며 학자들 사이의 논쟁은 이런 종류의 문제에 관하여 정규적으로 터져 나온다.

그러므로 물몬경이 니파이땅의 고대 생활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과 현대 조사에서 이야기하는 메소아메리카 생활 방식 사이에 상당히 유사한 점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우리도 경전과 상관없는 역사 문제를 다루는 사람과 정확히 똑같은 기반의 가능성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물몬경의 내용과 물리적인 유물 사이의 연결 고리를 하나의 가능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물론 그렇다. 이것은 저명한 고고학자들이 오랫동안 하나의 내용과 그들의 주제를 연결시켜 오던 것과 같은 것으로서,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성경 역사에 관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큰 업적이 이루어졌다.

고고학자들은 고대 생활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거의 무지한 상태에 있는데, 왜냐하면 그릇 조각, 돌 조각, 부서진 벽을 근거로 하여 믿음의 근원, 사회 구조 및 개성에 관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시기에든지 고고학자들은 땅에 버려진 모든 증거 가운데 작은 일부분만 찾아내기 때문에 고대에 존재하였던 것과 존재하지 않았던 것에 관하여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는 것이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문화적인 유물이 다른 정보 즉 언어학, 비문,

생물 인류학, 식물학적 확인 등에 의하여 보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 고고학적 발견에 대한 해석은 조용하게 “현재까지는”이라든가 “이렇게 보인다.” 등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고고학은 그 자체의 한계성이 있으므로 고고학자들은 비록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이 발견한 한정되고 막연한 통계에 의거하여 합리적인 추론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예일 대학의 마이클 코우는 일정한 아즈텍 신들을 2500년 전의 올멕 상들과 연결시키고 애쓰고 있다. 우리는 16세기에 스페인 사람들이 기록한 구전으로부터 주로 아즈텍 신들의 특성을 알고 있다. 그는 올멕 상들이 아즈텍 신들의 특성과 같은 특성을 가진 신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15/ 그의 동료인 조지 쿠블러는 똑같은 정보를 갖고도 전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16/ 그러나 이것도 판단의 문제이다. 한편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지역인 고대 유대 지방에 관한 해석도 굉장히 다양하다. 두 세대 전의 윌리엄 에프 알브라이트 교수는 텔 라쉬스 장소를 앓수르와 바빌론 침략 모두와 관련하여 구약에서 언급한 “라기스” 성이라고 했다. 그가 그렇게 말한 근거는 4세기에 유세비우스가 말한 전설의 기사였다. 그는 이 문제의 장소가 그 구약의 도시의 장소가 될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여러 장소와 여행 거리를 열거하고 있다. 시카고 대학의 알스트롬 교수가 이 학설에 도전하였다. 이 장소에서 수년간 일한 텔 아비브 대학교의 데이빗 우시쉬킨은 그 인정된 확인은 순전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나 그의 판단이 “상당히 그럴듯하다.”는 것을 인정한다./17/

수많은 물몬경 탐구자들은 현대 파테말라시의 한 부분인 카미날루유의 큰 장소가 물몬경 니파이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입증된 것인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오늘날의 가장 진보된 고고학적 사고 방식을 따르고 있을 따름이다. 엘 알 빈포드 교수는 “고고학적 기록 사실의

애매성”에 직면하여 고고학자들은 이 애매성에 의하여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을 신중하게 고려해 보고, 어느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가에 관한 판단에 도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가능성이 고고학적인 언어에 있어서 어떤 말의 참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18/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이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만든 과학은 고사하고 과학은 “잠정적 영원”이다. 포퍼는 이렇게 덧붙여 우리를 확신시켜 준다. “우리는 우리의 주관적인 확신의 경험에 있어서, 또한 주관적인 신앙에 있어서만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다.”/19/ 과학은 그런 “주관적인 신앙”과 동등한 것은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반세기 동안 열심히 파헤친 것에 전주어 볼 때 니파이인의 기사가 지금 얼마나 가능하게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상당히 재미있다.

전쟁

전문가들의 의견이 극적으로 좀더 물몬경과 일치하도록 변한 주제의 한 가지 좋은 예가 전쟁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메소아메리카에 대한 지배적인 설명은 고대의 절정의 시기에는 평화로운 사회만 존재하였다는 것이며 이것은 주후 약 300년부터 800년까지의 장려한 마야 및 테오티후아칸 폐허가 그 예라고 생각하였다./20/ 마야의 지도자들은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며 복잡한 여러 신들을 예배하고 사색하고 훌륭한 예술품을 감상하고 그들의 달력을 가지고 철학적인 게임을 하거나 “신세계의 회람인”처럼 행동했을 것으로 상상하였다. 주후 천년 이후에야 메소아메리카 역사에서 군사 행동이 어떤 작용을 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아밀라스, 랜즈, 팔레름 등/21/ 몇 사람이 이런 견해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1970년대에 유카탄 반도의 벤키에 있는 툴레인 대학교에서 행한 사업과 함께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곳의 중심은 원둘레가 거의 2킬로미터나 되고 폭이 평균 16미터나 되는 호에 둘러싸여 있다. 이것을 만든 사람들은 호

내부에 두둑을 만들기 위하여 흙을 쌓아 올렸다. 데이빗 웹스터는 이렇게 요새화하는 것의 군사적인 효과를 이렇게 설명하였다.

“밖으로부터 ‘위로’ 던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뾰족한 말뚝의 보호를 받았을 방어자들은 투창기와 투석기를 사용함으로써 접근하는 적에게 장거리 미사일을 퍼부을 수 있었을 것이다.”/22/

이것은 마치 엘마서 49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바꾸어 말하는 것과 거의 똑같이 들린다. 그러나 스페인 정복자 콜테스는 1520년대에 타바스코, 멕시코, 혼두라스 사이의 숲을 헤치고 나가면서 비슷한 종류의 요새화된 장소를 여러 개 보았다. 베칸은 물몬경보다 훨씬 이후에 나온 근대의 별로 의미없는 장소의 하나에 불과한가? 웹스터는 베칸 호와 벽은 주후 150년과 450년경 사이에 건설되어 물몬과 모로나이가 살았고 싸웠던 시간을 포함한다는 것을 잘 나타내었다./23/

그때부터 그것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통계가 상당히 많이 생겨났다. 현재 그렇게 요새화된 장소가 100군데 이상 알려져 있다. 레이 매시니가 에드즈나에서 호로 둘러싼 커다란 요새를 찾아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24/ 멕시코 제국의 로마 토레모트는 기원전 약 400년경의 울타리를 두른 언덕 꼭대기의 부락이었다./25/ 유명한 몬테 알반에 있는 3킬로미터의 방어벽의 일부는 기원전 200년으로 되돌아간다./26/ 혼두라스 서쪽에 있는 로스나란조스의 중심지는 기원전 500년 내지 천년 사이에 만들어진 큰 호가 완전히 둘러싸고 있다./27/ 이 실재적인 장소 이외에도 여러 세기 동안 그림, 무기의 잔해 및 전사의 그림이 발견되어 왔다. 또한 돌벽도 발견되었다.(엘마서 48장 8절과 비교한다.)/28/ 또한 오악사카의 퀴카틀란 계곡에서는 지금 그리스도 시대 이전에 만들어진 공공 해골 진열장이 발견되고 있다.(아즈텍 트쑤판틀리) 이것은 아즈텍인들이 정복할 때 그들의 군사 통치에 모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기 위하여 사용했다./29/ 유럽인들이 도착했을 때 사용했던

전쟁 관습이 메소아메리카의 매우 이른 초기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그러나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의 고대 생활을 설명하는 출판물은 모두 이 견해를 정면으로 반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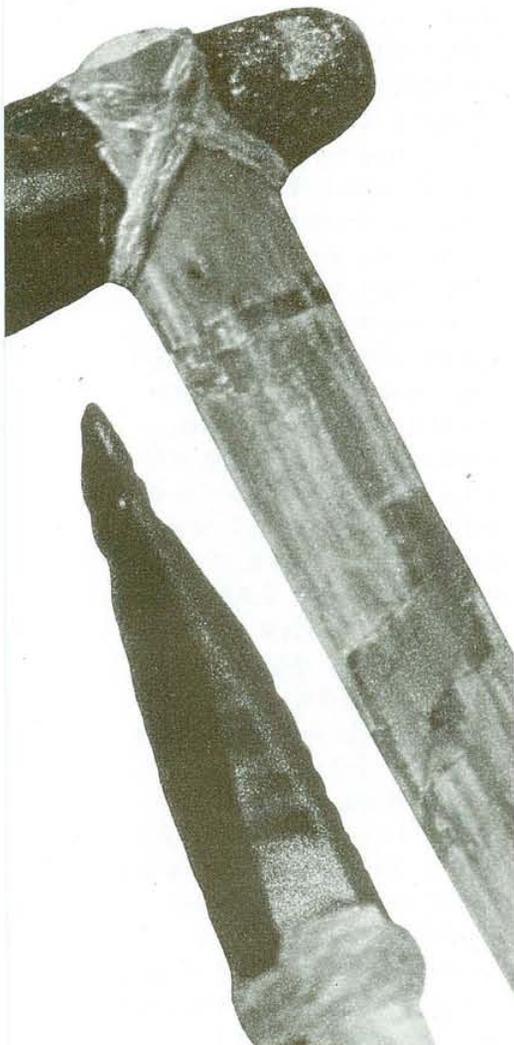
넓은 견해의 무서운 영향은 최근의 한 사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옛 제자 한 사람이 나에게 좀 염려하는 편지를 보내 왔는데 그것은 동부의 어떤 대학교에서 그의 교수가 물몬경의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활과 화살은 주후 900년까지는 메소아메리카에 없었다고 그에게 장담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중앙 멕시코에서 나온 사금파리 위에는 그런 무기를 가진 남자의 그림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었다. 그 조각은 그 교수가 말한 “인정된” 시대보다 약 800년 앞서서 만들어진 것이었다./30/

엘마서 48장부터 니파이삼서 3장에 있는 요새를 만드는 설명, 야벳인과 니파이인의 기록에 있는 잦은 전투, 희생자의 규모, 그때 사용한 수많은 전략과 무기, 군대 조직 양식 및 이 주제에 관하여 물몬경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정보는 메소아메리카에 관한 우리의 지식이 최근에 발견됨에 따라 요즈음에는 완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인구

1560년에 비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 신부는 콜롬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두 세대가 되었을 때 신 스페인에서 약 4천만의 아메리카 원주민이 “부당하게 폭정을 통하여” 멸망한 것으로 추산하였다./31/ 1930년대에 고고학자인 에이 엘 크뤼베는 유럽인이 도착했을 때 이 대륙의 전체 인구를 훨씬 적은 840만으로 계산했다./32/ 이 극단적인 예가 유럽인이 오기 전의 인구 숫자를 결정하는 어려움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인구 산정은 그것을 계산한 사람의 시대를 반영할 때가 흔히 있다. 크뤼베의 숫자는 역사학자, 인류학자 및 다른 학자에게 영향을 미친 대공황의 비관적인 태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반면에 번영기인 1966년에는 헨리 도빈스가

개조한 무기, 돌망치와 돌창, 남 파테말라 몬테알토에서 출토된 것, 물몬경 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서기 1500년경에는 미대륙에 약 9천만의 원주민이 살고 있다는 통계 측정을 하게 되었다. 또한 그 중 4천만 이상이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에 있었다고 계산했다./33/ 물론 인구 연구는 추측이나 제멋대로의 해석에 의거하지는 않는다. 역사적 및 고고학적 자료를 좀더 주의깊게 검토하고 전문가들이 상호 비판을 통하여 서로 교정해 줌으로써 진짜 숫자를 좀더 잘 이해하게 된다. 윌리엄 데네반이 1976년에 쓴 1492년의 미 원주민 인구는 여기에 관한 모든 주장을 다 고려하였다. 이 대륙의 총인구가 5,700만이었다고 하는 그의 계산은 상당히 안전하게 보인다. 그는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에는 약 2,700만 명이 있었다고 결론지었다./34/ 그뿐 아니라 페르난도 데 알바 익스틀릴소치틀에 의하면 10세기의 “톨레인”들이 수백만의 병력으로 전쟁을 하고 56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한다./35/ 그는 정부 이후의 멕시코 역사 자료로 현지의 토속 문서를 사용하였다. 과장했을 가능성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숫자가 합리성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6백년 전의 니파이인 전사 23만 명의 사상자도 마찬가지다.(물문서 6 : 10-15 참조) 수십년 전의 인구 통계학자들이 제시한 메소아메리카 인구의 숫자는 야젯인과 니파이인의 결전에서 죽은 수백만 명에 관한 물문경의 기록과는 일치할 수 없었다. 이제는 물문경에 나와 있는 점령한 땅, 생태학, 부락 규모, 전쟁 사상자 및 기타 인구와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보고된 인구 변화에 있어서 상당한 일관성과 실재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책에서 보고한 절대적인 숫자는 현재 메소아메리카 조사에서 인정할 수 있는 숫자와 같은 범위에 있다.

금속 사용

비판자들은 고대 아메리카에서 물문경에서 얘기한 구체적인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 알려진바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 거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주제의 비판자나 지지자 모두 올바른 시기와 장소에 관한 경전

말씀이나 비교할 수 있는 문화적 물질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었다는 것을 나타내 보였다.

오랫동안 메소아메리칸 학자들은 이 지역에서는 서기 900년경의 고대가 끝나기 전에는 금속 가공은 알려져 있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물문경에서는 니파이인들이 거의 역사 초부터 철, 동, 구리, 쇠, 금, 은을 사용했으며(니이 5 : 15), 야젯인은 그보다 거의 천여 년 이전에 금, 은 및 다른 금속을 사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통계와 해석으로 인하여 다시 물문경을 좀더 밝게 비추볼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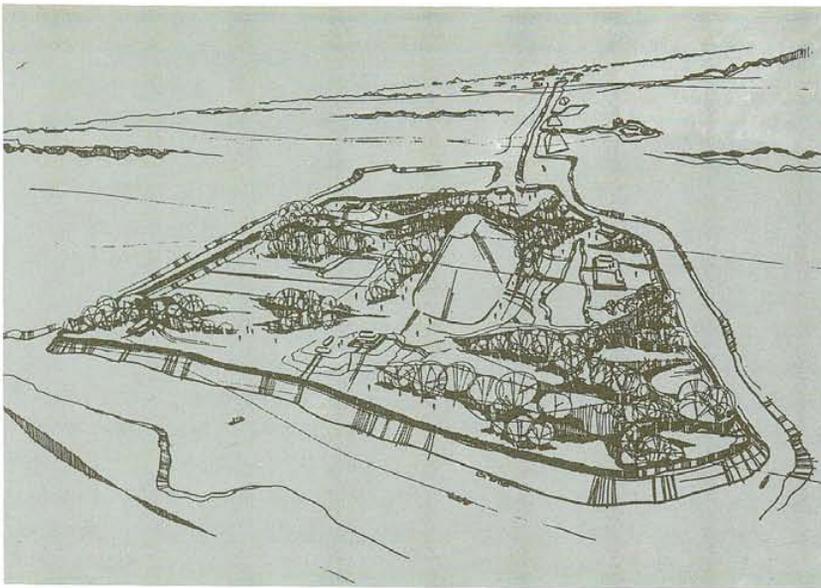
메소아메리카에 있는 대부분의 금속 공예품은 스페인 정복 직전의 여러 세기에 속한다. 그러나 그때도 이 지역에 금속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아마도 이전의 물건을 다시 사용하거나 녹여서 다시 만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런 가치를 지닌 물건이 고고학자가 발견할 수 있는 곳에 남겨지는 일은 몹시 드물었을 것이다. 초기의 금속 물건으로 발견된 것은 일반적으로 적었으며 또는 그것을 무덤이나 거룩한 곳의 제물로 바치기도 하였다. 지금은 서기 900년으로부터 주전 1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수십 개의 금속 조각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백성들이 금속을 다루는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준다. 그러나 언제나 금속 물질은 비교적 귀하고 소중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패터슨은 콜롬부스 이전 시기에 금속이 비교적 적었던 것은 기술이 한정되어서 광맥을 파내기가 어려웠던 것과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36/

그러나 우리가 현재까지 발견한 소량의 조각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속 처리 기술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수수께끼이다. 우리는 페루인들이 주전 2천년 직후에 간단한 금속 가공 기술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37/ 페루와 메소아메리카가 서로 접촉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만일 금속 따위와 같은 소중한 문화적 재산이 한쪽에서 다른쪽으로 전해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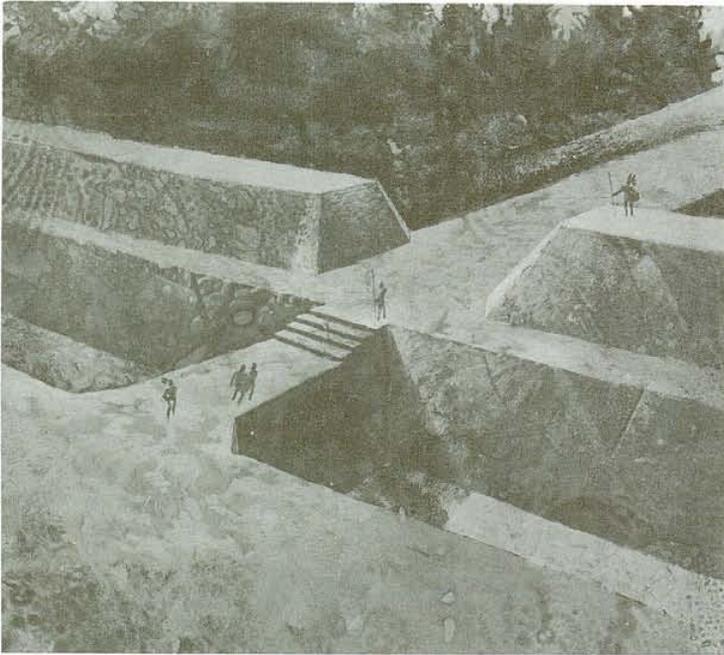
않았다면 그야말로 놀랄 일이다./38/ 대양을 건너 금속 처리 기술이 소개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페루인에 관한 지식만 보더라도 이 점에 관하여 받아들여진 고고학적 이론은 잘못이었으며 메소아메리카 사람들이 사실은 현재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이 기술에 관하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언어 연구를 해보면 메소아메리카에서 초기에 금속을 사용했다는 개념을 뒷받침해 준다. 오랫동안 언어학자들은 모어 또는 원형 언어를 재조립하기 위하여 현재 남아 있는 관련 언어를 비교하는 일을 해왔다. 롱가커 교수와 밀런 교수는 멕시코의 오악사카주 및 주변 지역에서 쓰이는 믹스테칸 원형 언어의 일부를 재생해 냈다. 그들의 통계에 의하면 주전 1천년경에 금속(또는 적어도 금속 중)을 가리키는 말이 나온다./39/ 트젤탈-트조칠 언어에 관한 카우프만의 연구 결과 마야 지역에서는 금속에 관한 또 다른 말이 서기 약 500년경에 생겼다는 것이 나타났다. 그러나 주전 약 2천년경에 주류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 생각되는 마야 언어인 후아스텍에서도 똑같은 근원이 발견된다./40/ 한편 캄벨과 카우프만은 프로토 믹스 조퀴안에 관한 설득력있는 연구에서 이것이 올멕 문명의 주언어였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나타내 보였다. 여기에도 그들이 주전 1500년 이전에 생겨난 것으로 생각하는 금속에 관한 단어가 있다./41/ 그러므로 현재 역사 언어학에서는 주전 1천년 이전에 고대 메소아메리카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언어에서 금속이 알려져 있었고 사용되었으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장래에 고고학자들이 비록 소수이기는 하겠지만은 현재의 공백을 메꿀 금속 견본을 찾아 내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물문경에서 이야기한 금속 가운데 지프라는 것이 있다.(모사 11 : 8 참조) “빛나는”이라든지 “도금한”이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히브리어의 파생어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메소아메리카 물질에 관련해서는 아마 툼바가(tumbaga)가 논리적으로 가장



멕시코, 캄페체, 옛츠나의 요새를 그린 화가의 추상화.



멕시코, 캄페체, 베칸에서 발견한 것에 근거를 둔 요새와 방어 흙 축조물 작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42/ 이 동과 금의 합금은 콜럼비아와 중앙 아메리카에서 흔히 발견되었으나 마야 유적에서도 발견되었다./43/ 또 다른 가능성은 서부 멕시코에서 루빈 데 라 보블라, 켈리, 이스비가 발견한 독특한 동과 주석의 합금이다./44/ 또는 주석 자체만을 지프라고 했을 수도 있다. 현대의 금속학자들은 지금 합금은 모두 다 알려져 있으며 지프같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은 없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비슷한 사례를 살펴보면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물리적인 분석 및 분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세 러시아의 자료에서는 어떤 금속을 칼시니(Kharsini)라고 하고 있다. 이 문서를 조심스럽게 읽음으로써 최근이야 이것을 비소와 안티모니로 구성된 천연 물질이라고 시험적으로 정해 놓았다. 예전에 학자들은 칼시니가 구리임에 틀림없다고 추측했었다./45/ 비슷한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켈리와 이스비는 메소아메리카 고고학자들이 콜럼비아 이전 시기의 채광, 제련 및 주석 사용에 관한 “사실을 완고하게 부정하는”것을 비판하였다. 일반적으로 고고학자들은 스페인 정복 이전에 이런 금속이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부정하고 있었다./46/

한편 크레도크는 리하이 시대쯤인 회람과 에트루스칸 시대에 구리와 아연의 합금인 동이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실증하기 위하여 새로운 분석법을 사용하면서 지중해에서 고대 금속에 관한 또 다른 잘못을 바로잡았다. 금속 아연도 역시 사용되었을 수 있다./47/ 오랫동안 표준처럼 된 이야기는 아연과 이것으로부터 의식적으로 합금한 것은 유럽에서는 1700년대에 와서야 시작되었다는 것이었다. 그 이론 때문에 “동판”이 좀 문제가 되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정확하게 물문경이 말하는 그대로 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모든 것의 논점은 이것이 “지식”에 관하여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지프가 무엇인지 모른다. 금속학자나

고고학자들이 그들의 현재 통계가 얼마나 완전하다고 믿는지 우리는 더 연구함에 따라 새로운 정보가 나오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런 정보는 이미 발굴한 표본의 화학적 구성, 앞으로 틀림없이 이루어질 발견, 금속 용어 등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수년 전에 스웨덴의 고고학자인 시그발드 린이 멕시코의 테오티후아칸에서 발굴한 도자기 그릇의 내용에 대하여 좀더 조심스럽게 연구하고 싶다. 이것은 서기 300내지 400년의 것으로서 동과 철을 함유하고 있던 “금속같이 보이는” 물질을 담고 있다./48/ 동시에 관심이 있는 말일성도들은 금속에 관한 모든 말과 함축된 의미를 분석하고 연관시키기 위하여 볼몬경 내용을 조심스럽게 검토하여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만 합당한 비교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볼몬경의 금속 사용 “문제”는 이미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당히 진척된 것같이 보인다. 좀더 폭넓은 면에서 지속적으로 개방적인 과정으로서의 조사가 이 기사의 논문이었다. 말일성도 독자나 전문적인 고고학자 및 그들의 친지 가운데 어느 쪽도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안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여러 증거”를 피상적으로 다루는 범위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말일성도들은 자신이 고대의 원문을 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방법을 증진시켜야 한다. 고고학자들은 고대로부터 온 문서에 낳은 종교적인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그들의 관심을 끄는 물질적인 유물에 관한 새로운 이해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성도나 고고학자나 상대방의 업적을 무시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양측이 모두 열심히 공부하는 태도가 가장 현명한 방식이다.

주

1. 토마스 쿤,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시카고 : 시카고 대학 신문, 1962년).
2. 칼 알 포퍼,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뉴욕 : 기본 서적, 1959년), 280페이지. “옛날의 과학적

인식지의 이상……절대적으로 분명하고 실증할 수 있는 지식……은 우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과학적인 객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의견은 무엇이든지 잠정적 영원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런 의견이 확인될 수도 있으나 이런 확인도 모두 역시 잠정적인 다른 의견과 관련지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의 확신과 주관적인 신념에 있어서만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

3. 웰즈 제이크먼, “고대 중미 달력 방식 : 그 기원과 발전” *브리검 영 대학교/제보 및 고대 역사 출판물*, 제1호, 1947년, 휴 니블리 “동방의 거울로서의 볼몬경,” *임프르브먼트* 51(1948), 202-204, 249-51페이지. 시드니 비 스펠리, *우리의 볼몬경* (솔트레이크시티 : 스티븐즈 및 윌리스, 1947년)

4. 존 더블류 웰치, “볼몬경의 교차 대구법을 구약전서, 유가리틱(ugaritic) 서사시, 호머 및 특별히 선정된 희랍 및 라틴 저자들의 교차 대구법과 관련시킨 연구” 석사 학위 논문, *브리검 영 대학교*, 1970년 : 존 더블류 웰치, 편집장, *chiasmus in Antiquity* (힐더세임 : 게르스텐베르크 벨라그, 1981년).

5. 로버트 와우츠프, *Lost Tribes and Sunken Continents* (시카고 : 시카고 대학 신문, 1962년). 마이클 디 코우 “볼몬과 고고학 : 외부 견해,” *Dialogue* 8(1973), 40-48페이지.

6.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세부 사항에 관하여서는 다소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 사람의 일부를 연대순으로 적은 것이다. 제이 에이 와시번 및 제이 엔 와시번. *An Approach to the study of Book of Mormon Geography* (프로보 : 뉴 이라 출판, 1939년) : 엠 웰즈 제이크먼, 적어도 1946년부터 *브리검 영 대학교* 강의실이나 공공 강연회에서 연설함 : 토마스 스튜어트 퍼저슨, *Cumorah-Where?* (미주리주 인디펜덴스, 1947년) : 밀턴 알 헌터 및 토마스 스튜어트 퍼저슨, *Ancient America and the Book of Mormon*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 콜롬 출판사, 1950년) : 로스 티 크리스텐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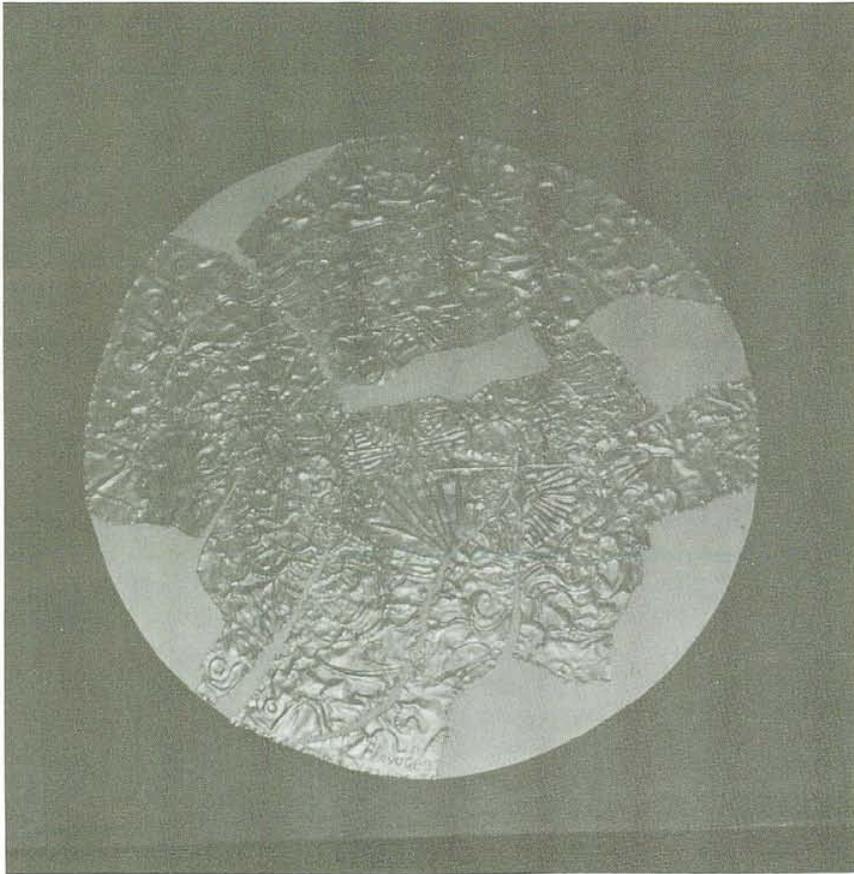
“볼몬경 고고학의 현재 위치 : 제2부, *Millennial Star* (1952년 10월), 234페이지 : 존 엘 소렌슨, “세상 어디에? 볼몬경 지리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 개인적으로 배부한 볼몬경 연구서, 제8호, 1955년; 브이 가스 노먼 “내로 벡크 오브 랜드 지역에 관한 볼몬경 지리 연구,” 개인적으로 배부한 볼몬경 지리 연구서 제1호, 1966년; 시드니 비 스펠리, *Book of Mormon Compendium*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68년), 447-451페이지; 휴 니블리, “볼몬경과 유적들” 고대 조사 및 볼몬 연구 재단, *Nibley Archive Reprint BMA-BM* (1980), 2페이지; 데이비드 에이 파머, *In Search of Cumorah : New Evidences for the Book of Mormon from Ancient Mexico* (유타주 바운티풀 : 호라이즌 출판사, 1981).

7. 예, 노먼 에이 맥켄, “미원주민의 토착어,” *American Anthropologist* 57(1955년), 501-70페이지.

8. 니파이(및 야렛인) 땅의 범위가 한정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성구에 관하여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해 왔다. 그 한 예가 *브리검 영 대학에서 오랫동안 경전 교수로 일한 시드니 비 스펠리의* 최근의 저술이다. 그는 다음 성구에 함축된 의미를 여러 번 토론하였다. *우나이* 1 : 20-21; *모사* 8 : 7-12; *엘마* 22 : 30-32; *볼몬* 1-5; *이더* 9 : 3; *이더* 14장 및 15장. 또한 제이 나일 와시번의 *Book of Mormon Lands and Times* (솔트레이크시티 : 호라이즌 출판사, 1974년), 250-17페이지, 283-87페이지, 주 6에서 인용한 1947년 퍼저슨 및 1981년 팔머를 참조한다.

9. 마이클 디 코우, “마야 기록 발전에 있어서의 초기 단계,” 이것은 편집자인 에이치 비 니콜슨의 *Origins of Religious Art and Iconography in Preclassic Mesoamerica* (로스앤젤레스 : UCLA 라틴 아메리칸 센터 및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민족 예술 평의회, 1976년), 110-11페이지.

10. 주 6번과 8번에서 인용한 자료 이외에도 존 엘 소렌슨의 *An Ancient American Setting for the Book of*



치펜 잇자의 회생 세노스(Cenoth)에서 나온 황금
유물 사진.

Mormon 참조 (프로보, 고대 조사 및
물문 연구 재단, 신문)

11. 다음 추리를 고려해 보자: (1) 니파이인의 구모라와 야렛인의 라마는 같은 언덕이었을 것이다. (이더서 15:11). (2) 뼈가 흩어져 있었던 이 지역(움나이서 1:22; 모사이야서 8:8 및 21:26-27)과 “호수와 강과 샘이 많은 곳”(물문서 6:4; 이더서 15:8)은 데솔레이손 땅에 있었으며, 그곳은 땅의 협만에 있는 바운티풀 땅과 접해 있는 곳이었다. (엘마서 22:29-32) (3) 물문서 3내지 6장을 보면, 니파이인의 마지막 전투는 “남방으로 뻗은 좁은 변방에 있는 데솔레이손 땅”(물문서 3:5, 7)이라는 큰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국지화되었음이 분명하다. (4) 그러므로, 니파이인과 레이맨인의 마지막 전쟁터였던 구모라는 대륙의 협만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추론된다.
12. 아이 엠 루이스, “북 소말리 언어 구조의 전의와 분열,” *American Anthropologist* 63(1961년),

- 109페이지; 에프 바스, “분절 반대 및 게임 이론: 패단 조직 연구,”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89(1959), 7페이지; 더블류 에프 알브라이트, *Yahweh and the Gods of Canaan: A Historical Analysis of Two contrasting Faiths*(런던: 런던 대학/애슬론 신문, 1968년), 82페이지; 나이젤 데이비즈, “아즈텍 역사 개념: 툴라 및 티오티후아칸”, 1982년 맨체스터에서 제44차 국제 아메리카주의자 의회에서 제출한 논문.
13. 윌리엄 에프 알브라이트, *The Archaeology of Palestine*(하모즈워스: 펜진 출판사, 1949년), 85-87페이지; 리처드 에이 디엘, “툴라”, 편집자인 제이 에이 새블로프의 *Supplement to the Handbook of Middle American Indians*, 제1권, *Archaeology* 291페이지에 있음. (오스틴: 텍사스 대학 신문, 1981년)
14. 캐스린 엠 케넌, *The Bible and*

- Recent Archaeology*(애틀란타, 조지아: 존 녹스 출판사, 1978년), 33-43페이지.
15. 마이클 디 코우, *멕시코*, 제2판(뉴욕: 프레이저, 1977년), 86페이지.
16. 조지 쿠블러 “테오티후아칸의 미술의 도해법,” *Dumbarton Oaks studies in PreColumbian Art and Archaeology*, 제4권(와싱턴 디 시, 1967년), 11-12페이지.
17. 확인 문제에 관한 논쟁은 1982년 2월 브리감 영 대학에서 우시시킨이 행한 강연에서 요약함.
18. 루이스 알 빈포드, “응답” *Current Anthropology* 24 (1983년 6월), 373페이지; 원본에서 강조.
19. 주 2 참조.
20. 데이비드 엘 웹스터, *멕시코 캄페체 베칸의 방어 흙 작업: 마야 전쟁 시사*, (틀레인 대학, 중류 아메리카 조사 기구, 출판 41, 1976년), 108페이지.
21. 앤젤 팔레름, “메소아메리카에서의 군사용 축조물 및 전쟁에 관한 소고,” *Anales del Instituto Nacional de Antropologia e Historica*(멕시코), 7(1956), 123-34페이지; 페드로 아밀라스, “메소아메리카 요새,” *Antiquity* 25(1951) 77-86페이지; 로버트 엘 랜즈, 고대 마야 미술에 있어서의 몇 가지 전쟁 증거, 박사 학위 논문, 뉴욕 콜럼비아 대학, 1952년(대학 마이크로필름 박사 학위 논문 일련 번호 4233호, 1952년).
22. 웹스터 96페이지.
23. 같은 책 87페이지.
24. 레이 티 마세니, 디엔 엘 구르, 도널드 더블류 포사이스 및 에프 리처드 후크, 멕시코 옛즈나 캄페체에서의 조사, 제1권, 제1부: 수리 방식. (브리감 영 대학: 신세계 고고학 재단, 논문 46, 1983년), 169-91페이지.
25. “현재 조사,” *American Antiquity* 45(1980), 622페이지.
26. 리처드 이 블랜튼 및 스티븐 에이 코왈류스키, “옥사카 제곡에서의 몬테 알반과 그 이후” 제이 에이 새블로프 편집. *Supplement to the Handbook of Middle American Indians*, 제1권,

설명 : 메소아메리카 일부의 지도 개요, 여기에는 남 멕시코와 콜로 데 테후안테펙 근처의 서 과테말라도 포함되어 있다. 이 지역과 관련된 기록 방식은 지리적으로 여기에 표시되어 있으며 각 특정한 방식이 나타난 것 중에서 알려져 있는 가장 최초의 것을 나타낸다 : (1)멕시코, 오악사카, 몬테 일반, 주전 약 800년경(2)멕시코, 틀라틸코, 주전 500년 이전; (3)과테말라(스텔라 10), 카미날루유, 주전 150년경; (4)멕시코, 센트럴 베라크루즈(트레스 자 포테스)주전 약 30년경; (5)로올랜드 마야, 과테말라와 멕시코 서기 300년경; 멕시코, 테오티후아칸, 서기 약 300년경; (7)중앙 멕시코, 보르지아 무리, 서기 650년경; (8)멕시코, 누이네(믹스테카 바자), 서기 600년경; (9)멕시코, 베라크루즈, 타진, 서기 600년경; (10)과테말라, 코추말후아파, 서기 600년 이후; (11)멕시코, 모렐로스, 엑소치칼코, 서기 800년경; (12)멕시코, 옥사카-구에레로, 믹스텍, 서기 700년경; (13)중앙 멕시코, 톨텍, 서기 950년경; (14)멕시코, 아즈텍, 서기 1450년 이후.

Archaeology(오스틴 : 텍사스 대학
신문, 1981년) 100페이지.

27. 클라우디 에프 바우데즈 및
피에레 백켈린, *Etudes
Mesoamericaines*, 제2권, *Archeologie
de los Naranjos*, (멕시코 : Mission
Archeologique et Ethnologique
Francaise au Mexique, 1973),
3-4페이지.

29. 팔레름, 129페이지; 웹스터
98페이지.

29. 찰스 에스 스펜서 및 엘사 엠
레드몬드, “쿠이카틀란 캐나다에서의
고대 발달 및 형성 발달 : 예비 보고,”
로버트 디 드레난 편집, *테후아칸
계곡 지역의 선사 시대 사회, 정치,
경제 발전 : 팔로 블랑코 사업의 몇
가지 결과에 있음*. 미쉬간 대학,
인류학 기술 보고 박물관, 11호(고고학
조사 보고, 기고 6), 1979년
211페이지.

30. 플로렌시아 플러 “Instrumental
Armas,” *Sociedad Mexicana de
Antropologia, Teotihuacan: Onceava
Mesa Redonda*(멕시코, 1966년),
231페이지.

31. 헨리 에프 도빈즈,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 추산 : 신대륙 추산 기술
평가,” *Current Anthropology* 7(1966),
396페이지.

32. 같은 책 396페이지.

33. 같은 책 416페이지.

34. 윌리엄 엠 데네반 편집, *The
Native Population of the Americas in
1492*(메이슨 : 위스콘신 대학 신문,
1976년), 289-92페이지.

35. 밀턴 알 헌터 및 토마스 에스
퍼거슨, *Ancient America and the
Book of Mormon*(캘리포니아,
오클랜드 : 콜롬 출판사, 1950년),
385페이지. 이것은 영어로 된 유일한

자료임.

36. 클레어 시 패터슨, “고대
야금가가 이용할 수 있었던 토착
구리, 은, 금, *American, Antiquity*
36(1971), 331페이지.

37. 제이 더블류 그로스먼, “고대
세금공의 연장 : 페루에서 가장 최초의
금속 기술” *Archaeology* 25(1972),
270-75페이지; 에이 시 플슨, “남쪽
해안 지방 에콰도르 및 안데스의 다른
지방 사이의 선사 시대 무역,” 이
논문은 아메리카 고고학회 제37차
연례 회의에서 발표한 것임.

38. 제이 찰스 켈리 및 캐롤 엘
릴리 편, *PreColumbian Contact within
Nuclear America*, 남일리노이 대학,
카본테일, 대학, 박물관의 조사 기록,
메소아메리카 연구. 4, 1969년

39. 이 롱카커 및 린 밀런,
“원형-멕시코칸 및
원형-아무즈고-믹스테칸 단어 : 예비
문화 분석,” *Anthropological
Linguistics* 3(1961), 22페이지.

40. Terence Kaufman, “El
Proto-Tzeltal-Tzotzil: Fonologia
Comparada y Diccionario
Reconstruido,” *Universidad Nacional
Autonoma de Mexico, Centro de
Estudios Mayas, Cuadernos* 5(1972),
118페이지, Marcelo Alejandro, *Cartilla
Huasteca con su Gramatica,
Diccionario y Varias Reglas para
Aprender el Idioma*, Secretaria de
Fomento, 멕시코, 1899년,
84, 88페이지, H. de Charency, “Les
Noms de Metaux chez Differentes
Peuples de la Nouvelle Espagne,”
*Congres International des
Americanistes, Compte-Rendu, Paris*
1890, 파리, 1892년 539-41페이지.

41. 라일 캠벨 및 티 카우프만,

“올멕에 관한 언어학적 관찰,”
American Antiquity 41 (1976),
80-89페이지.

42. 리드 에이치 풋남, “Tumbaga의
물문의 판이었는가?” 경전 고고학에
관한 제15차 연례 심포지엄
논문(유타주 프로보 : 브리감 영 대학
익스텐션 출판사, 1964년),
101-109페이지. 현재 고대 조사 및
물문 연구 재단 재인쇄 PUT-64로
이용할 수 있음.(P.O.BOX 7113,
University Station, Provo, UT 84602,
USA).

43. 데이비드 엠 펜더개스트,
“영국령 혼두라스(벨리즈)의 알턴
하에서 발견된 초기 고대의 톱바가
유물” *Science* 168(1970년 4월 3일),
116-18페이지.

44. 알 알 켈리 및 디 티 이스비
이세, “멕시코 정복 이전에 주석 재련
및 금속 주석을 사용한 것에 대한
새로운 증거,” *35a Congreso
Internacional de Americanistas,
Mexico, 1962, Actas y Memorias*,
제1권, 멕시코, 1964년 511페이지.

45. 엘 지 엘리바 및 에이 엠
가사노바, “중세 기록 자료에 있는
미지의 금속 칼시니의 문제,” *Doklady
Akademiya Nauk Azerbaidzhanskoi
SSR* 37, 제4호(1981년), 84-87페이지.
*Art and Archaeology Technical
Abstracts* 19(1982)에 있는 영어 발췌
111페이지.

46. 켈리 및 이스비, 507-17페이지.

47. 피 티 크래들, “유럽의 최초의
동” *MASCA Journal* 1(1978년 12월),
4-5페이지.

48. 시그발드 린, *Mexican Highland
Cultures*, 스톡홀름, 스웨덴 인종
박물관, 출판물 7, 1942년, 142페이지.

*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사 54 : 13)

초등협회 : 선을 위한 군대

드웬 제이 영
본부 초등협회 회장



초등협회 어린이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이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들은 비회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비활동 회원을 도우며 서로 서로 강화시켜 준다.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사 54:13)라는 초등협회 주제는 우리 모두가 어린이들을 잘 가르쳐 그들도 서로 가르치게 해야 하는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책임은 새해에 “여호와를 찾으라.”(이사야 55:6 참조)는 목표를 채택하는 연결 과정에 있어서 온 교회의 초등협회 교사 및 지도자들에 의하여 잘 받아들여져 왔다.

우리는 매년 모든 초등협회 역원을 위하여 특별한 목표를 준다. 금년의 목표는 모든 지도자와 교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도록 추구하라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우리의 생활에서 그분의 영향력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며 그리하여 그들이 그분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범을 본받으려는 소망을 갖게 해야 한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의 생활에서 다른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자신이 하나님에게 속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기를 원한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일단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들의 지식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어한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을 비활동 또는 비회원 부모와 친구에게 전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활동화시킨 것에 관한 보고를 듣고 있다.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케루의 켈라밤바에서는 어떤 소년이 다른 교회 성직자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였다. 이 성직자가 어린 말일성도 소년을 볼 때마다 이 소년은 물론경을 읽고 있었다. 그가 소년에게 그 책이 뭐 그렇게 재미있느냐고 묻자 그 책은 남아메리카의 고대 주민의 역사의 기록이며 그 성직자도 읽어 보셔야 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선교사 토론이 시작되고 칠파를 받게 되었다. 어린이들이 경전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금년의 초등학교 성찬식 발표의 초점이다. 어린이들이 “주님을 찾은 특별한 시간에 관한 경험을 발표하게 될 것이다. 새 노래 “나 어릴 때 주님을 찾으리”를 어린이들이 불러 어릴 때 주님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켜 주게 될 것이다. 어린이들이 요셉 스미스가 어떻게 주님을 찾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주 살아 계시고”(다 함께 노래를)를 부르면서 간증을 전할 것이다.

그 이외에도 “다 함께 노래를”에 있는 노래 가운데 성찬식 발표에 포함될 노래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네 정성 다하여” “물론경 이야기”. 이 발표에는 “어린이를 위한 노래 모음”에 있는 두 곡 “계명을 지키세” “온 세상 어린이들” 및 “두 찬송가” “오 사랑스러운 아침” 및 “화평과 안식의 한 시간”도 포함될 것이다. 부모들이 이런 찬송가 및 다른 찬송가와 노래를 자녀와 함께 부르면서 기쁨을 갖기 바란다. 이런 노래는 가정의 밤이나 기타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노래를 부름으로써 가족 단합이 촉진될 것이며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공과에서 배우는 복음의 가르침을 다시 강화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어린이들이 공과에서 배운 교훈대로 생활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살 및 11살된 소년과 소녀를 위한 복음실천 프로그램은 자기 향상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네 가지 범주 즉 개인, 가족, 교회, 지역 사회에서 각각 한 가지 경험을 선택함으로써 복음 원리대로 살도록 도움을 준다. 그런 경험에는 재능을 발전시켜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 좀더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을 발견하는 것, 개인 가계도를 완성하거나 개인 일지를 작성하는 것, 적어도 한 달 동안 매일 경전을 읽는 것, 개인, 가족, 반 봉사 사업을 계획하여 완성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네 가지 일을 완성하면 참여자는 그 성취한 것을 인정해 주는 상을 받는다.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는 분기 활동일 동안에 복음을 실천할 수 있으며 이것은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에게 건전한 즐거움을 준다. 우리는 비회원이나 일요일에 보통 초등학교에 오지 않는 어린이들이라 할지라도 쉽게 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4번씩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활동일 프로그램의 한 예는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에서 발표한 것으로 이때 약 150명의 어린이가 전통 음악과 무용을 발표하였다. 모든 와드가 그림과 공예도 전시하였으며 어린이들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표현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또 하나 성공적인 활동일은 “남녀 영웅들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것”이다. 여기에서 어린이들은 유명한 사람의 생애 관련하는 미술이나 공예를 배운다. 어린이에게는 그들이 모방할 훌륭한 기독교인 영웅이 필요하다. 훌륭한 교회 지도자 및 자기 이웃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바치거나 계속해서 바친 사람들의 모범이 많이 있다. 또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감독, 초등학교 교사 및 지도자 등 우리가 매일 이야기를 나누는 영웅들도 있다.

나는 언젠가 타히티에서 그런 “영웅”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파피테 스테이크의 파마타이 와드 초등학교 회장인 메리 투아였다. 투아 자매는 초등학교 출석부에는 200명이나 등록되어 있는데 참석하는 어린이는 50명밖에 안되는 것을 알아내고

자신의 능력이 닿는 한 많은 어린이를 정규적으로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자매는 와드 서기와 함께 그 이름을 모두 찾아보고 아직 와드 구역내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방문하였다. 투아 자매는 부모의 승인을 받아 그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참석하도록 초청하였다. 5개월만에 100명의 어린이가 매 주 참석하였으며 만 8세가 지난 어린이 8명이 칠파받았다. 내가 파피테를 방문했을 때 교실에는 어린이들이 짝 차 있었고 그들은 사랑과 열의에 넘치는 교사가 잘 준비한 공과를 열심히 듣고 있었다. 그날 투아 자매는 “자기” 어린이가 세 사람 더 참석했기 때문에 특히 더 기뻐하였다. 그 자매는 그들을 식품점에서 보았으며 그들의 어머니로부터 그들이 초등학교에 참석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어린이들이 발산하는 그 열성이 와드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다.

내가 이 부름을 통하여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의 하나는 온 세상의 어린이들을 방문하는 것이다. 그들이 하는 말을 항상 다 알아듣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구세주와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을 느낀다. 나는 내가 방문하는 모든 곳에서 초등학교 지도자 및 교사들의 어린이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느꼈다.

초등학교 지도자 및 교사로서 우리의 책임은 막중한 것이다. 이사가 54장 13절에 있는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라는 훈계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라는 약속이 수반된다.

진실로 우리는 우리 어린이들이 복음대로 생활하고 그 원리를 수호함으로써 얻게 되는 화평을 누리기를 바란다. *

“하나님이 주신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솔트레이크시티 신학 연구원에서
1983년 11월 5일 말일성도
대학생들에게 행한 연설을 발췌하여
편집한 것임.

나는 내가 살아오는 동안 온 세상을 여행하면서 문제가 있고 큰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런 시련과 염려에 대한 답으로서 나는 옛날에 사도 바울이 쓴 말씀들을 자주 회상하곤 했습니다. 당시에 그는 아마 그가 말한 대로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부음이 되고(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딤후 4:6) 그는 간증이 확고했고 살아나신 주님에 대한 간증을 전하려는 소망이 열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곧 죽으리라는 것을 알았고 후임 동반자인 디모데에게 대단한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딤후 1:6-7)

우리 가운데 누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즉시 정복할 수 있으나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저서 정복당하여 패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조소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무시당할 두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를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짐을 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주려 하지만 자기 생활을 바꾸는 것을 겁냅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며 이 끈질기고 파괴적인 힘은 진리와 의의 원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두려움은 신앙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 영향은 매우 해로우며 때로는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딤후 1:7 참조)

이런 원리는 우리에게서 힘을 빼앗아가고 때로는 우리가 패배하도록 만드는 두려움에 대한 훌륭한 해독제입니다. 이런 원리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어떤 힘입니까? 복음의 권세, 진리의 권세, 신앙의 권세, 신권의 권세입니다.

작년에 많은 기독교계가 마틴 루터 탄생 5백 주년을 기념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대하고 용감한 종교 개혁 선구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존경합니다. 나는 그분이 작사한 훌륭한 찬송가 가사를 사랑합니다.

내 주는 강한 요새요
능력의 성이 되시네
세상의 환란 질고를
이겨 내시는 주님
우릴 멸망에서
구하여 내시니
그 권능 크셔라
만물을 만드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리
(“내 주는 강한 요새요,” 찬송가 41장)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알 때 큰 힘이 생깁니다. 우리 내부에는 뭔가 신성한 것이 있습니다. 이 지식을 갖고 있고 자기 생활이 이 지식의 영향을 받게 하는 사람은 결코 저속하거나 값싼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거룩한 속성을 개발하도록 노력합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신앙으로 인하여 조소받을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따금 어느 정도 그런 모멸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에는 조소를 이길, 사실상 그것을 유익하게 바꿀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 본부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며 많은 친구를 성공적으로 변화시킨 어느 여고생의 경험담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여고생은 교회 회원이 아닌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여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고생은 단호하게 “우리는 술을 먹지 않고도 굉장히 재미있게 놀 수 있어.”라고 말하였습니다.

정말로 다행이었던 것은 그 여고생의 친구들이 그를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녀의 힘은 그녀의 모범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고 고상하고 도덕적으로 되기 위한 용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힘을 키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의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복음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일찌기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진리를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원수로부터 옵니다.
두려움은 신앙의
반대입니다.

종파나 종교도 (또는 진리의 구도자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며,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하나의 참된 원리는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든 그 모든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복음 교리, 1페이지)

우리는 영원한 진리의 빛에 따라 생활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불건전한 논리는 자체가 진리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진리가 완전한 진리를 나타내는 것처럼 하여 사람을 잘못 인도하는 데 종종 사용됩니다. 온갖 이론과 위선이 마치 확인된 진리인 것처럼 표현될 때가 흔히 있습니다. 시간이나 상황 또는 쓰여진 말의 문맥으로부터 끄집어 낸 말을 진리인 것처럼 내놓을 때가 흔히 있는데 사실은 그런 과정이 바로 거짓의 핵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개종한 영국인인 존 잭스가 이것을 현재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서 다음과 같이 잘 말했습니다.

때를 초월한 진리는 무어나
만물의 시종되는 진리
천지 다 무너지고 또한 멀해도
진리만이 모든 것 이기고
영원히 영원히 빛나리.
("말해 보아라 무엇이 진리냐?"
찬송가 63장)

우리들의 내부에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진리대로 의롭게 생활할 때 오는 권세를 간직하는 한 두려워할 필요가



“사람을 덕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두려움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빛이라. 빛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받은 빛이 더욱 밝아지고 점점 더 밝아져서 드디어는 대낮이 되리라.”(교성 50 : 23~24)

없습니다.

또한 신앙의 권세가 있는 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도 많고 적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것을 조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것들을 얕잡아 봅니다. 그들은 신성한 것을 우습게 보이도록 만든 것을 보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려고 애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에 이보다 더 어긋나는 행동을 생각해 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훗날에 만들려는 행위로 인하여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대업은 이 세상의 어떤 인간보다 더 위대합니다. 이 대업은 어떤 원수들일지라도 저들을 물리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없이 신앙의 권세에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사업의 초창기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말라. 어린 양 떼들아, 선을 행하라. 세상과 지옥이 연합하여 너희를 대적케 하라. 너희가 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으면 저들이 이기지 못할 것임이라”……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두려워 말라.”

“찢린 내 옆구리의 상처와 내 손과 발의 못 자국을 보라. 충실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천국을 상속받으리라.”(교성 6 : 34, 36-37)

바울은 고린도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고전 16 : 13)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딤후 1 : 7)

무엇에 대한 사랑입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 그의 사업, 그의 대업, 그의 왕국에 대한 사랑, 사랑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도 의심을 이기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나는 대학생들에게 오십여 년 전에 내가 경험한 대학 생활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시절은 어두운 시절이었습니다. 냉소주의와 무서운 절망이 만연하던 시대였습니다. 경제 공황 가운데서도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내가 졸업할 때인 1932년에는 실업률이 30퍼센트가 넘었습니다. 미합중국과 전세계가 무서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무진 급식사의 줄이 늘어서고 자살이 빈번한 시기였습니다.

대학 연령의 젊은이들은 어쨌든 조금은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경향이 있습니다만 1930년대에는 그 시대의 냉소주의가 그런 태도를 더욱 충동질했습니다. 많은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인생, 세상, 교회, 복음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에 의문을 갖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때는 기쁨과 사랑의 계절이기도 했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생각 뒤에 사랑의 기초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 것은 훌륭한 부모, 훌륭한 가족, 훌륭한 감독, 헌신적이고 충실한 교사 및 읽고 사색할 경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그의 사업에

대한 어떤 사랑이 있었으며 이로써 우리는 많은 의심과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였고 훌륭하고 선한 친구들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부터 위대한 힘을 끌어냈습니다. 두려움, 의심, 염려, 낙담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사랑의 권세가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딤후 1 : 7)

바울이 말한 근신하는 마음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나는 그가 복음의 기본 원리를 의미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에게 있어 복음이란 신학적인 전문어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간결하고 아름답고 논리적인 것으로서 조용한 진리가 순서대로 질서 정연하게 정립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신비에 관해서 조바심내지 않습니다. 나는 하늘문이 미달이 문인지 도어식 문인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이 열린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신약전서에 네 사람의 복음 저자가 있어 각자 자신의 관념을 갖고 당시에 자기가 기록하는 목적에 일치하도록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조금도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첫 시현에 관하여 몇 가지 이야기를 했다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경륜의 시대에 위대하고 기이하고 훌륭한 계획을 계시하겠다는 사실에 더욱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인간이 그들의 창조주의와 구속주를 사랑하고

서로 감사하고 봉사하며 신앙 가운데 불사 불멸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을 견도록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 바꾸어 말하면 빛과 진리니라”(교성 93 : 36)고 한 훌륭한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또한 “연구와 신앙으로써” 지식을 구하라는 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성 88 : 118)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신체 기관 진화에 관하여 굉장한 토론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지질학과 생물학 강의를 들었으며 당시에 가르쳐지던 다윈의 학설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원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관하여 경전에서 밝힌 바를 읽었기 때문에 그런 학설 때문에 심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나에게 훨씬 더 중요하고 훌륭한 종류의 진화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진화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인간의 진화 또한 우리 창조주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의 진화입니다. 나에게서는 이 위대한 원리가 다음 계시의 구절에서 표현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람을 덕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어두움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빛이라. 빛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받은 빛이 더욱 밝아지고 점점 더 밝아져서 드디어는 대낮이 되리라.”(교성 50 : 23-24)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의 내부에 존재하는 위대한 잠재력에 관한 약속에 있어서 훌륭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과 딸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써 우리 안에 심어 주신 약속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들 중 누구라도 인생의 시련과 역경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미 대통령은 다른 관점에서 “두려움 그



자체만을 두려워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바울이 가르쳐 준 너무나 중요한 이 진리를 상고하기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딤후 1 : 7)

그리고 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훌륭한 권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를 부끄러워 말고.”(딤후 1 : 8)

이 권고가 우리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진 것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구세주이며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에 있어서 결코 거만하지 않도록 자신을 갖고 또한 조용한 위엄을 품고 행동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에서 힘을 발견합니다. 그의 존재를 바로 본질에 속하는 화평에서 화평을 찾습니다. 모든 인간에 대한 희생으로서 자신을 주신 그분의 영 안에서 기꺼이 희생하도록 합시다. 그분의 계명,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찌어다.”(사 52 : 11)라는 그의 계명에 따라 행동합니다. 우리는 회개하라는 그분의 계명을 성취하여 어떤 잘못된 행동도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그가 약속하신 자비에

의하여 그의 용서를 간구합니다. 서로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그분에 대한 사랑을 발휘합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 사항.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원수로부터 옵니다. 두려움은 신앙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해독제로써 힘, 사랑, 건전한 마음을 주십니다.

2. 복음의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힘을 줍니다.

3. 우리는 지속적인 사랑의 힘 즉 주님, 부모, 가족, 친구 및 교회 지도자들의 사랑을 통하여 두려움, 의심, 염려, 낙담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4. 건전한 마음의 힘은 우리가 복음이 간단하고 아름답고 논리적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5.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때 결코 거만한 태도가 아니라 자신을 갖고 또한 우리 구세주에 관한 확신에 있어서 조용한 위엄을 갖추고 행동합니다.

거룩한 율법의 적용

마빈 케이 가드너

러셀 엠 벨슨 장로

그는 1978년 2월에 멕시코의 만자닐로에서 30년 전에 함께 졸업한 의사들과 모이는 의학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의사가 한 사람이 대단한 장내 출혈을 일으키며 중태에 빠진 것이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방안에 있는 의사 가운데 누구든지 그를 치료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의학 훈련을 받았고 수년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더욱 가다듬은 터였다. 그러나 동료가 고통에 빠진 것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무력함을 깨달았다.

러셀 엠 벨슨 장로는 이렇게 회상한다. “우리는 변두리 어촌의 휴양지 호텔에 묵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병원이 없었고 가장 가까운 곳이 산길로 몇 킬로미터 가야 하는 과달라자라였습니다. 때는 밤이었고 비행기는 날 수 없었습니다. 장비 부족으로 수술은 불가능했습니다. 친구가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지식과 염려를 다 합쳐서도 그 친구를 돕기 위한 여하한 행동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출혈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 환자는 축복을 부탁했다.

벨기세때 신권을 소유하고 있던 몇 명의 의사가 즉시 응하였고 벨슨 형제가 축복을 하게 되었다. “성령이 내게 출혈이 멈추고 그 사람이 살아서 자기 집과 직장으로 돌아가리라고 일러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벨슨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병든 육체나 부러진 육체를 고치기 위하여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적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의학 학위와 훈련에 의하여 그 위에 좀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을 고치는 진정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도 불충분할 때 인간에게 유익을 주시고 축복할 때 그의 신권의 권능을 통하여 그 권세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을 적합하게 해주셨습니다.”

벨슨 박사는 외과 의사로서 인간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신권의 권세가 작용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그러나 또 다른 거룩한 원리가 작용하는 것도 목격하였다. “축복받기 원하면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에 순종하십시오.”

예를 들어 그는 스페인 더블류 킴볼 대관장이 수술받기 전에 그에게 축복을 부탁했던 것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축복을 받은 다음 예언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이제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새로 종관리 역원이 된 그는 이렇게 말한다. “거룩하게 창조된 육체를 40년간 다루면서 그 기간의 100퍼센트를 하나님의 율법을 다루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런 율법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며 영구히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율법은 의사의 일에 적용되는 것과 똑같이 사도의 부름에 적용됩니다.”

이런 경험은 러셀 엠 벨슨 장로가 1984년 4월 7일에 받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부름에 대한 준비를 갖추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부름이 오기 훨씬 전부터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과 전문적인 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을 배웠다. 그는 이것을 조상이

물려 준 유산의 덕으로 돌린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 8분은 모두 유럽에서 교회에 입교하여 유타주로 이주하여 에브라임 마을에 정착하였다. 그들의 용기와 결의는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다.

러셀은 1924년 9월 9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매리온 시 벨슨과 에드나 앤더슨 벨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소년 시절에 여러 가지 일에 관심을 가졌다. 10살 때는 아버지의 광고 회사에서 심부름을 했다. 그 이후에는 은행, 우체국, 사진 스튜디오에서 시간제로 일을 했다. 자신의 완벽한 음정을 깨닫고 고등학교와 대학에서는 합창단에서 노래했고 음악 쇼우에서 공연하고 4중창단에서 노래하여 입상하기도 했다. 그는 피아노도 치고 토론 팀에 참여하기도 했다.

러셀은 여러 가지 다른 활동에서도 성공적이었으나 미식 축구 코우치는 시험 때 보통 그를 벤치에 앉아 있게 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내가 항상 내 손에 대하여서는 늘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그 췌기박은 구두로 내 손을 밟을까봐 무서웠어요.”라고 회상한다. 그 손이 그로부터 거의 40년 후에 그 코우치를 수술했다.

그는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공부를 잘했고 여러 개의 명예 협회 회원이었고 1945년 6월에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때 그는 이미 본과 1학년에 들어가 있었으며 4년 과정을 3년만에 끝냈다. 1947년 8월에 그는 만 22세로 “정식 의사”가 되었으며 자기 과에서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 동안에 그는 이미 단첼 화이트를 만나 결혼해 있었다. 그 자매는 러셀이 참여하도록 설득당한 대학 연극의 주연 소프라노였다. 그는 그녀를 만나 노래를 들었을 때 큰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내가 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였으며 내가 결혼할 사람이 그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 연극에서 공연하도록 더 이상 설복할 필요가 없었으며 그들은 3년 뒤인 1945년 8월 31일 솔트레이크 신전에서 결혼하였다. 단첼은 학사 학위를 받고 첫아가기 태어날 때까지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고출력 확대경 및 특수 조명기가 수술대에서 일하는 벨슨 외과 의사를 돕고 있다.

벨슨은 미네소타 대학의 인턴으로서 의학계의 역사를 만들어 낸 팀에서 일하였다. 그들은 3년 동안 힘들게 노력한 결과 처음으로 심장 수술 기간에 환자의 심장과 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하였다. 1951년에 그 기계는 인간에 대한 최초의 심장 개복 수술에서 완전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4년 뒤 벨슨 박사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처음으로 성공적인 수술을 행하여 유타주가 국내에서 이 중요한 이정표에 세번째로 도달한 주가 되게 하였다.

그는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내는 사건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덕분이라고 한다. “내가 의과 대학에 다니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인간의 심장을 만지면 안되며, 만지면 박동이 멈추어 버린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교리와 성약 88편 36절에서는 ‘모든 왕국에는 저마다 하나의 율법이 있나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심장이 박동하는 축복까지도 율법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만일 그런 율법을 알고 통제할 수 있다면 아마도 병자를 축복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우리가 과학적인 실험에 있어서 일하고 연구하고 합당한 질문을 던지면 심장의 박동을 다스리는 법칙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법칙의 일부를 알기 때문에 심장을 멈추게 하고 손상을 입은 밸브나 혈관을 고치는 섬세한 수술을 하고 다시 심장이 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오기 전에 한국 동란 중 미국에서 2년 동안 의무 일을 하도록 징집받았다. 그는 한국, 일본 및 와싱턴시의 월터 리드 육군 메디칼 센터에서 봉사하였다. 나중에는 보스톤에 있는 메사추세츠 종합 병원에서 1년간 일하고 나서 1년간 미네소타 대학으로 돌아와서 1954년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

벨슨 박사는 유타주의 집으로 돌아와서 연구와 교편 생활과 수술 작업을 계속하였다. 그는 공공 봉사에도 참여하여 지역, 국가, 국제 조직에 수많은 영향력있는 전문적인 직책을 맡아서 일하였다. 그 많은

직책에는 흉곽 수술 책임자 협회 회장, 미국 흉곽 수술 이사회장 등이 포함된다.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말일성도 병원에서는 흉곽 외과 과장 및 관리 이사회 부회장으로 봉사했다. 그가 받은 수많은 명예 가운데는 미국 심장 협회로부터 받은 “국제 봉사 표창장” 및 미국 성취 학회로부터 받은 “금판상” 등이 있다.

그는 오랫동안 문자 그대로 수천 명의 환자들의 심장에 손을 댔는데 그 가운데는 고위 교회 지도자 및 민간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1972년에는 스펜서 더블류 킴블 장로의 심장 수술을 집도했으며 그 이후 이 환자가 언젠가는 교회 대관장이 되리라는 증거를 받았다. (성도의 빛, 1983년 4월호, “러셀 엠 벨슨, 순종 가운데서의 연구” 참조)

이제 의학으로부터 떠나 완전히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그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 그는 “나는 이 봉사의 특권을 수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는 씩 웃으며 이렇게 말한다. “나는 늘 나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러 오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까지 내 사무실로 오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곳에 오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서 내가 만날 약속을 하는 것은 대부분이 기쁜 약속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품의 특징은 그의 인생의 한 단계가 끝날 때의 슬픔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단계에 대한 열정으로 치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는 수년 전에 태너 부대관장님으로부터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과거를 돌이켜 보며 이렇게 이렇게 할걸 하고 괴로와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거를 다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매시간마다 그 시간의 기회가 있었으며 나는 그때마다 잘 하였거나 못하였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과거로부터 돌아옵니다.”

벨슨 장로는 여러 해 동안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 그가 만 19세였을 때는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었으므로 복음 선교사로



봉사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발견하였다. 어떤 간호원이 그에게 어떻게 해서 다른 의사들과 다른지 물었을 때 그는 교회를 소개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그 간호원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나중에 그의 아들은 선교사로 봉사하였다.

또 두 사람의 동료-남편과 부인-가 교회에 관심을 보였을 때 교회 원리를 몇 가지 설명하고 물문경을 빌려 주었다. 그들은 일주일 후에 정중하게 감사하며 물문경을 돌려주었다.

그는 두 친구에게 “고맙습니다. '라니 무슨 뜻이죠?'”라고 말하였다. “이것을 읽은 사람의 반응으로서는 아주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책을 안 읽으셨죠. 다시 갖고 가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좀더 적합한 반응을 보이며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사실 그 책을 얼핏 읽었을 따름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3주 뒤에 눈물을 흘리며 돌아왔다. 그들은 “이 책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좀더 배울 수 있지요?”라고 말했다.

이 젊은 의사는 미소를 띠며 “이제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신 것을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결국 그는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러셀 벨슨은 오랫동안 열심히 의학을 공부하고 전문가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수행하면서도 자신이 교회에서 받은 직책을 충실히 실행하였다. 그는 주일학교, 제사 정원회, 감독단, 고등평의회에서 일하였다. 그는 10년 동안 템플 스퀘어에서 선교사로 봉사하였다. 그는 스테이크 부장으로, 본부 주일학교 회장으로 또 지역 대표로 봉사하였다.

그러나 벨슨 장로는 다른 어떤 중요한 일을 맡든지 그의 주관심사는 언제나 그의 가족이었다. 한번은 어떤 전국적인 잡지의 저자가 이 의사의 특이한 가족-9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의 사진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벨슨 장로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한

목표는 우리 가족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및 지역 사회에서의 봉사, 계속적인 교육, 자신의 직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등은 모두 우리 가족을 위한 발전을 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 작가는 놀랐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인터뷰할 때 당신은 부인과 함께 늘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라.’(마 6:33)는 성구에 순종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가족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군요.” “그는 나를 옳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지 내가 오랫동안 확립해 온 우선 순위를 되돌아보고 나는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족을 사랑하며 명예롭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할 수 없습니다. 먼저 나의 아내를 사랑하고 보살피지 않고서 가족을 명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더 많은 학교 교육을 받고 싶어한 것을 지지해 준 것에 대하여, 그 어려운 시기에 그들의 궁핍에 대하여 한번도 불평하지 않고 “가정의 심장”이 되어 준 것에 대하여 부인에게 공을 돌린다.

그러나 벨슨 자매는 남편이 정말로 지지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내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그는 결코 아이들이 나에게 무례하게 하거나 말대꾸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언제나 ‘어머니가 집의 여왕이다. 어머니가 무엇을 원하는 그대로 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언제나 그렇게 지지받았어요.”

목요일은 늘 그녀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날이었다. 벨슨 자매는 목요일 오전에는 언제나 말일성도 병원에 가서 자원 봉사한다. 그리고 1967년부터 태버내클 합창단원이 되어 목요일 저녁에는 연습에 참여한다. “과거에 남편은 그날 밤에는 아이들과 함께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시간을 쪼였습니다.”

한번은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이 그녀에게 그렇게 바쁜 사람의 부인이 되는 것이 어떤지 물었다. 그때 대답한 것을 리 대관장이 자주 인용하였는데 그것은 “남편은 집에 오면 집에 있습니다.”라는 것이었다.

벨슨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그는 집에 오면, 완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쏟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에 식사와 접시담는 것을 도와 주고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 주고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책을 읽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우리 두 사람만 함께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벨슨 자매는 이제 자신의 역할이 변한다고 생각하는가? 자매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가 의료 사업 대신에 전적으로 교회 사업에 투신함으로써 느낌이 전혀 다르리라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저의 역할은 지지하는 역할로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그의 동반자가 되어 이것을 그와 함께 나누는 영광을 받았읍니다.”

자녀들도 벨슨 자매와 같은 느낌이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모두들 아버지가 자기를 제일 좋아한다고 느끼고 있다. 딸 에밀리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아빠가 저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에 너무 바쁘시다고 느낀 적은 결코 없었어요.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그는 매우 어려운 일정 가운데서도 자녀 한 사람 한 사람과 영구적인 관계를 쌓기 위한 시간을 만들어 냈다. 그는 굉장히 많이 여행해야 하기 때문에 여행할 때마다 일반적으로 가족 한 사람 즉 벨슨 자매나 자녀 중 한 사람을 데리고 갔다. 그는 이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런 여행은 그들의 문제와 포부에 관하여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며 또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벨슨 자녀들은 일관성있는 규칙이 지켜지는 것을 믿을 수 있었다. 아침 6시 30분, 매일 경전 읽기; 아침 6시 45분, 매 식사 시간; 밤 10시에는 가족 기도; 매주 가정의 밤을 가진다. 그들은 모두 부모가 음악을 사랑하는 것에 참여하며 그룹으로서 함께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 오랜 세월 동안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아코디언 및 플루트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명절과 휴가는 늘 기다려지는 시간이다. 그들은 겨울에는 스키를 타러 간다. (벨슨 장로는 스키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가운데 하나”라고 말한다.) 여름에는 수상 스키, 수영, 테니스를 한다. 그들은 매년 하루씩 승마하러 간다. 벨슨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한 사람씩 데리고 말을 타던 추억을 몹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늘 그 어린 것의 머리에 코를 박고 팔로 아이를 감싸 줍니다. 아이들은 말을 타는 동안 안정감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안아 주었다고 생각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랑하는 아이들의 순서가 올 때 그들과 단 둘이서만 있었던 그 귀중한 순간을 꼭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하나하나가 그렇게 특별한 영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나는 아버지가 되었다는 큰 특권에 대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진실로 벨슨 일가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1972년에 10번째 아기 즉 첫 아들을 얻었다. 벨슨 자매는 17년 전 밤에 “단순한 꿈 이상”의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것은 언젠가는 그들이 아들을 갖게 되리라는 확신을 주었다.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번 그녀의 확신이 강화되었다. 1972년 그녀의 남편도 밤에 어떤 경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내가 아들을 임신하고 있으며 그가 여러 해 동안 그녀에게 나타났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러셀 2세가 태어나고 아빠가 집에 있는 딸들에게 전화로 알렸을 때 기쁜 비명 소리가 진동했다.

오늘날에는 집에 빈 방이 더 많다. 18세의 마조리와 12세의 러셀만이 아직도 집에 함께 산다. 다른 8명은 결혼했다. 마샤(크르 맥켈러 부인), 웬디(노먼 맥스필드 부인), 클로리아(리처드 아이리언 부인), 브렌다(리처드 마일즈 부인), 실비아(데이빗 웹스터 부인), 에밀리(브렛 윌터 부인), 로리(리처드 마쉬 부인), 로살리(마이클 링웃 부인) 그리고 현재 22명의 손자가 있다.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가족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벨슨 뉴스는 월간지로서 여기에는 각 가족원이 기고한 기사와 중요한 가족 행사 일정이 포함된다. 그리고 그들은 매달 함께 저녁을 들고 그 달의 모든 생일과 기념일을 경축하는 파티를 갖는다. 축하받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케이크에 장식하고 벨슨 장로가 그 사진을 찍어 멀리 있는 가족에게 보내 그들도 가족이 자기 생일을 경축했다는 것을 알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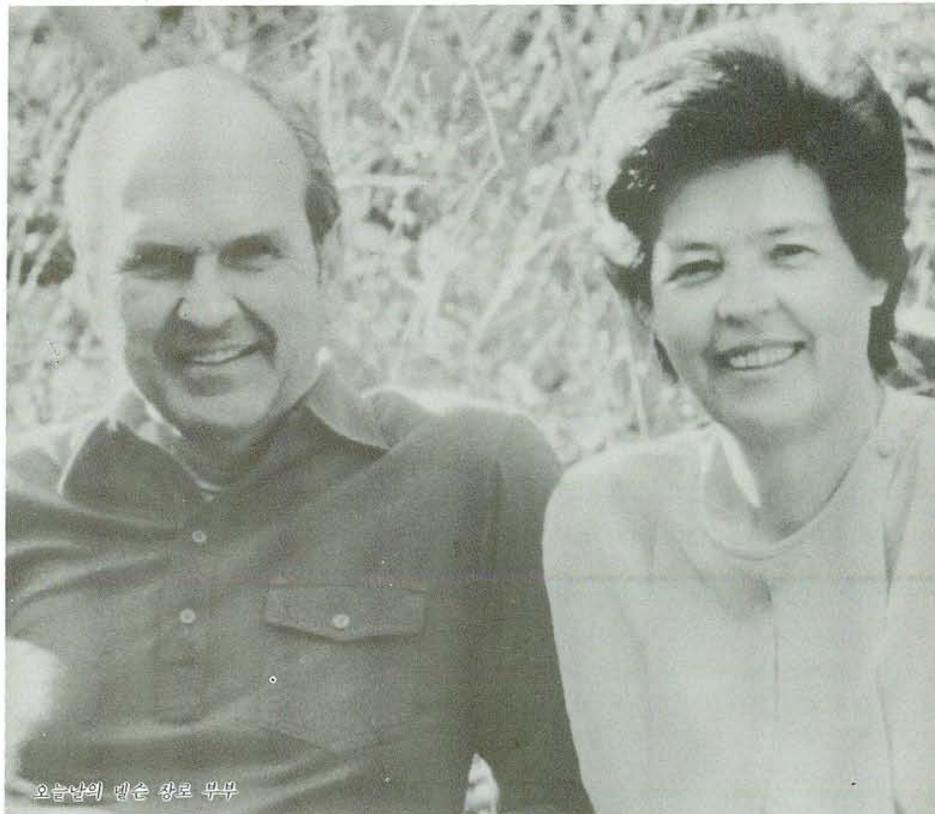
벨슨 장로는 몇 명의 딸이 집을 떠난 다음 빈 침실 한 개를 서재로 바꾸었다. “그것은 아내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내가 그런 특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더군요.” 이 방에는 사진 기구, 과학적 조사를 위한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와 교회의 “훌륭한 장서”와 과학 서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매일 아침 한 시간 동안 혼자의 시간을 갖고 시작한다. “나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면 혼자서 경전을 읽고 기도하고 약 반 시간 동안 울겐으로 찬송가와 바하의 곡을 연주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침에 집을 떠날 때면 내 마음은 훌륭한 것 즉 성구와 좋은 음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내가 발견한 다른 어떤 방법보다 더 훌륭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벨슨 장로의 개인적인 준비, 교회와 가족에 관련된 수많은 경험, 그의 직업은 모두 그의 간증을 강화시켜 주었다. 그는 의학 법칙을 다루며 평생을 보내면서 자신의 신앙을 사도로서 뿐 아니라 과학자로서 살피본다. “외과 의사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의 하나인 인간의 육신을 이해하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의 모든 부분이 내가 신앙을 갖도록 권고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새 부름이 더 높은 차원의 의미가 있다. “나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고도 지속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종사하고 있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업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포괄하며, 바람직한 것이며, 의욕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청지기 직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오늘날의 벨슨 장로 부부

병 속의 독수리

크레이그 제이 스미스

누가 하나의 병으로부터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까? 분명히 나는 어느 기념할 만한 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 유난했던 봄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의 모든 것이 예정대로 된다면 거의 3년간이나 열심히 노력한 목표 즉 독수리 소년단 배지를 받는 목표에 달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일과 관련된 기쁨 이외에도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이 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므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었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으며 형제같이 지냈다. 소년단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도 전혀 다를 것이 없었다. 우리는 제일 밑의 계급부터 거의 동시에 승진하였으며 우리의 노력을 똑같은 독수리 명예 법정에서 끝낼 것을 고대하고 있었다.

우리과 이 큰 행사 사이에 단 하나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독수리 심사 위원회였다. 우리는 우리 소년단 지역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선택받은 두세 사람의 위원과 개인 접견을 하게 되어 있었다. 이 사람들은 독수리 계급, 전반적인 소년단 프로그램, 우리 국가, 우리 소년단 봉사 사업 등에 관한 우리의 태도에 관하여 우리를 평가하게 되어 있었다. 그 봉사 사업은 우리 지역 사회에 뛰어난 특별한 봉사 활동이어야 하며 독수리 계급으로 올라가는 힘든 일에서 마지막 필수 요건이었다. 나는 내 사업이 심사 위원회의 인정을 받을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것을 진행하기 전에 몇 명의 지역 지도자들에게 보았다. 그들은 이것으로 족하리라고

다짐해 주었다.

드디어 내 친구와 내가 심사 위원회 앞에 서는 오래 기다리던 밤이 왔다. 그 접견실로 불러 들어갈 때까지의 기다리는 시간은 끝이 없는 것 같았다. 내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독수리상을 받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였으며 단 몇 분 이내에 나의 힘든 노력의 결과가 성공인지 실패인지 알게 되리라는 것뿐이었다.

마침내 그 영원히 계속되던 10분이 지나고 내가 불러 들어갔다. 내 친구도 곧이어 옆의 어떤 방으로 들어갔다. 몇 분 동안 이야기한 다음 위원들이 나의 봉사 사업에 관하여 물었다. 우리는 그것을 상세하게 토론하였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숙의하는 동안 나가서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다. 접견하려고 기다린 시간을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복도의 무거운 침묵은 마침내 그 접견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의하여 깨졌다. 나는 부모와 소년단장과 함께 다시 그 방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들었다. 그 위원회 지도자가 소년단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 맨 위의 단계에 도달한 것에 대하여 나를 칭찬하는 말로 이야기를 꺼냈다. 이 모든 칭찬은 좋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그가 “그렇지만……”이라고 말하는 모습만 계속해서 상상하였다. 나는 이 악몽이 정말로 생기기라고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그 위원회 지도자는 몇 분 동안 정중하게 칭찬한 다음 “그렇지만 우리는 너의 봉사 사업이 너에게 독수리 배지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만큼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나는 그 이전에 이렇게 큰 굴욕감을 느낀 적이 결코 없었다. 나는 기운이 빠졌다.

그때부터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 전에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렸던 방을 지나 오면서 독수리상 후보자들 앞에서 눈물을 터뜨리면서 몹시 자신을 의식했던 것은 기억한다. 또한 길게 3년이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노력한 친한 친구가 전혀 아무 문제없이 그의 심사 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기억난다. 그는 다음의 명예 독수리 법정에서 내가 빠진 채로 독수리 배지를 받을 것이다. 그때 경험한 실망과 굴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사실은 독수리 계급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매우 작은 단계라고 생각하였던, 사실은 달성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한 단계가 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막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 극복할 수 없을 것같이 보이는 실패로부터 회복할 수 있을까? 글썄, 아빠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렇다고 하실 것이다.

며칠 뒤 아버지께서 함께 차를 타고 가지 않겠느냐고 물으셨다. 당시에 나는 달리 더 좋은 할 일이 없었으므로 “안될 까닭이 없지?”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곧 알려졌다. 우리가 가까운 병 제조 공장에 가까이 이르게 되자 좀 이상한 이유이기도 했지만, 이곳이 우리의 목적지인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우리는 병 제조 공정이 시작되는 건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우리를 만드는 모래를 엄청나게 저장해 놓은 것을 가리키셨다. 우리는 그 뜨거운 백색의 액체 유리가 유리 형틀에 떨어져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매료당했다.

아버지는 병이 완성 단계로 나가는 동안 각 기계가 그 병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서 그 전체 공정을 보여 주셨다. 아버지는 그 공정의 끝에 다 왔을 때 “가열 착색”이라는 일을 하는 기계를 가리키셨다. 그 기계는 병이 “대중이 사용하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지니고 있는지 판별하기 위하여 모든 병에 굉장한 압력을 가하는 기계였다. 그 압력에 깨지는 병이 많았다. 아버지는 이 여행을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써 그 버려진 병을 한 개 갖고 가는 것이 어떻느냐고 말씀하셨다. 나는

마음속으로 “아빠, 이 견학은 참 재미있었지만 이것을 상기하기 위하여 평생 동안 이 병을 갖고 다니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억난다.

나는 이 병이 지니게 될 깊은 의미를 사실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집으로 오는 길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크레이그, 네가 방금 독수리 심사 위원회를 거쳐 간 것은 바로 이 압력 공정과 같은거다. 너는 그 병처럼 여분의 압력을 받았다. 이 경험으로부터 어떤 것이 나오는가 하는 것은 너에게 달렸다. 너는 이 압력으로 인하여 깨질 수도 있고 압력을 이겨 내고 다시 튀어 나갈 수도 있어. 네가 다시 튀어 오른다면 이 여분의 장애를 이겨 내면서 얻게 될 여분의 힘으로 인하여 네 친구를 따라갈 뿐 아니라 살면서 나중에는 아마도 그를 앞지르기까지 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나는 아버지께 감사드렸다. 아버지께서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하여 나에게 무언가를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드렸다. 그러나 이 경험이 의미하는 것을 모두 인식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다. 나는 부친께서 특별하시다는, 매우 특별하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유리병 공장을 다 보여 주기 위하여 기꺼이 시간을 내셨을 뿐 아니라 사실상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낸다는 것은 상당히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한 일이었다. 똑같은 상황에서 그저 “너무 안됐구나, 나는 정말로 네가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또는 “한번 더 시도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해. 미안하지만 나는 약속 시간에 늦었다.”라고 말할 아버지도 있다.

그 병 공장에서 배운 교훈은 매우 소중했고 지금도 소중하다. 그 때문에 나는 독수리 배지를 받기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였고, 그날 얻은 병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이 되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부친께서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순히 간과하고 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려고 노력하시면서 보여 주신 교훈이다. 그것은 정말로 대단한 창의력으로



이투어지 일이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교훈을 가르치기 위하여 사용하신 그 특별하고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하여 나는 그것을 9년 이상 기억해 왔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나에게 자녀가 생길 때 아버지의 모범을 따를 수 있고 중요한 것을 먼저 수행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되는 것뿐이다. *

비행기 추락

스티븐 알 애플렉

나는 가끔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될 때 사람들은 무엇에 대하여 생각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졌다. 자신의 인생 추억이 전광석화처럼 펼쳐지는가 하는 의문을 느꼈다.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즐기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잠이 깨어 우리의 쌍발 엔진 경비행기가 거치른 기류에 의하여 흔들리고 있고, 맑은 밤하늘이 구름으로 바뀐 것을 알게 되었다. 파일롯트인 마이크를 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서 우려의 빛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비행기 통제 장치들을 조정하며 비행 기구를 점검하고 있었다. 엔진의 규칙적인 소리가 불협화음으로 변하여 나같이 비행 경험이 적은 사람도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모든 것이 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마이크를 다시 보았을 때 나의 두려움은 다시 굳어졌다.

마이크는 무전으로 솔트레이크시티 레이더 본부를 불렀다. 그는 우리가 여러 가지 압력과 고도를 잃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나는 아무 말도 안했다. 그 순간 나는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 우리가 정말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마이크는 솔트레이크 레이더 통제소를 다시 불렀다. 그는 “우리의 카브레타 위에 얼음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돌덩이처럼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나는 온몸을 통하여 아드레날린이 치솟아 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직도 즐기고 있을 수 있나? 나는 놀랐다. 그러나 비행기의 고도계 숫자가 떨어지는 것을 지켜 보면서 계속되는 험한 상태로 인하여 이것이 결코 꿈이 아니라는 것을 곧 확신하게 되었다.

그날 밤 일찍 마이크와 나는 네바다주 라스베가스를 출발하여 유타주 솔트레이크로 돌아가고 있었다. 우리는 아리조나주 피닉스로 출장을 갔던 것이다. 비행기가 고도 4,500미터에 도달하였을 때 나는

긴장을 풀고 이번 주 출장을 끝내고 나니 얼마나 좋은가, 또한 금요일 아침 이전까지는 내가 집으로 올 것을 예상하지 않고 있을 아내 카린을 놀라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였다.

마이크와 나는 함께 자주 비행하였다. 그는 매우 친한 친구이며 매우 철저하고 주의력이 뛰어난 파일롯트이므로 나는 솔트레이크로의 여행을 즐길 준비를 하며 편안한 느낌이 들었었다. 우리는 하늘을 날 때 밤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살펴보았다. 밑의 지구와 위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느꼈다.

나는 가끔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모든 창조물에게 마음을 쓰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 그가 어떻게 모든 자녀의 기도를 듣고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염려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과 규칙적인 엔진 소리가 나를 잠들게 했던 것이다. 지금은 전혀 졸리지 않으며 마이크가 비행기를 다시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을 점점 더 염려하면서 지켜 보았다.

그런 순간이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우리는 빠른 속도로 험악한 산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암흑 외에는 아무것도 못 보았으며 비행기의 감속 경보 신호 소리밖에 다른 것은 듣지 못하였다. 이 경보는 우리 비행기의 속도가 안전 비행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무력감이 닥쳤다.

나는 갑자기 자연 법칙, 중력의 법칙, 공기 역학의 법칙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냉엄한 현실을 깨달았다. 그런 요소는 무엇이 공평한지 또는 마이크와 내가 죽으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급격하게 변하리라는 것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마이크에게 솔트레이크에 도착할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아니, 우리는 내려가고 있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리라고 말했다. 죽음은 순식간에 닥칠 것이다.

나는 가끔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될 때 사람들은 무엇에 대하여 생각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졌다. 자신의 인생 추억이 전광석화처럼 펼쳐지는가 하는 의문을 느꼈다. 질겁하게 되는가 하는 의문도 가졌다.

나의 경우에는 가족을 생각했다. 8명의 아이들—7명의 훌륭한 아들과 처녀 딸 하나—하나하나의 얼굴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했다. 나는 그들이 필요했다. 지금 이 상황을 상상도 못하고 있을 아내를 생각했다. 아내는 강하겠지만 마음에 큰 고통을 느낄 것이다. 나는 아내와 아내가 느낄 외로움에 대하여 슬픔을 느꼈다. 천사같은 어머니의 모습과 어머니의 비탄을 상상했다. 아버지가 모든 사람을 위로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상상했다. 나 자신을 위하여서는 두려움이나 공포가 엄습하지 않고 오히려 뒤에 남을 사람들에 대하여 슬픔을 느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놀라기까지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아직 달성하지 못한 목표와 약속에 대하여 생각했다. 이런 생각과 훨씬 더 많은 다른 생각이 불과 몇 초 동안에 압축되어 마치 잠시 동안 내가 그런 것을 생각하도록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마이크를 보고 그가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스티브.”라고 말하였다. 나는 그러지 않아도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이크가 나에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의 모든 비행 훈련과 경험도 우리를 살려 낼 수 없다는 것을 좀더 강력하게 느끼게 만들었다. 그는 하늘의 권세를 불러 내는 책임을



나에게 맡기고 있었다. 그는 우리의 운명을 조종하기 위하여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이크는 주님의 손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이전의 어떤 기도보다 더 열심히 집중하여 기도했다. 나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신권의 권세를 불려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면서 신권의 권세에 의하여 비행기에게 굳건히 서서 우리를 보호하라고 명하였다. 나는 자신의 대담함에 약간 놀랐으나 확신의 화평을 느꼈다. 이제는 그 필요한 신앙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결코 낭패감을 갖지 않았었다. 이제는 화평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

기도를 끝내고 창 밖을 보았을 때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엔진 소리는 더 나빠졌다. 우리는 무서운 속도로 고도를 잃고 있었으며 계속해서 감속 경고가 울렸다.

우리는 솔트레이크시티 레이더 관제탑에 마지막으로 무전해서 우리의 위치와 현재의 고도를 알려 주었다. 그들은 우리가 이 지역의 안전 고도보다 훨씬 더 낮다고 알려 주었다. 산봉우리가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다.

마이크는 나에게 무서운지 물었다. 나는 카린과 아이들에 대하여서만 슬픔을 느낀다고 말하였다. 그도 자기 가족에 대한 비슷한 느낌을 이야기했다. 우리는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가까운 우정에 대하여 서로 감사를 표시했다. 그리고는 기다렸다.

나는 창 밖을 보며 맹목적으로 땅을 찾아 보았다. 날개 끝에서 명멸 라이트가 비치는 순간 나는 험한 산봉우리가 날개 끝에서 불과 몇 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비행기는 좌회전했다. 마이크가 날개의 평형을 잡는 동안 나는 밑을 보고 땅을 보았다. 나는 우리가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놀랐다. 우리는 땅으로부터 몇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 다음 순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비행기가 땅을 치는 소리와 힘이였다. 무서운 첫 동요로 인하여

나는 앞으로 튕겨졌다. 이마가 어딘가에 부딪혔으나 내 정신은 말짱했다.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완전한 암흑 속을 미끄러져 나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낮선 집에서 눈을 가리고 달리며 어느 순간에라도 무언이 발이 걸리거나 벽에 부딪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과 같았다.

계속해서 미끄러져 나갔다. 우리가 얼마나 더 가면 바위나 나무 또는 산모퉁이에 부딪칠까? 나는 또다시 충격이 올 것을 예상했으나 충격이 없었다. 그 대신 비행기가 미끄러지는 것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완전한 정적이 감돌았다.

우리는 폭발을 염려하며 긴급히 탈출해야 한다고 느꼈다. 내가 문을 열었으며 우리는 어둠 속으로 기어나가 비행기로부터 멀리 갔다. 그때 나는 부상당한 것을 알았다. 나는 이마의 부상으로 큰 출혈을 하고 있었으나 살아 있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 주신 것을 알았다.

마이크는 부상당하지 않았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응급 처치를 해주었다. 나는 머리에서 피가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고통도 느꼈으나 어쩐지 그 고통이 나를 안심시켜 주었다. 우리는 모두 생명을 전져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드렸다.

마이크는 우리의 상황을 조사한 다음 긴급히 도움을 요청해야 하겠다고 느꼈다. 그는 내가 시선이 흐릿해지는 것을 보고 내부의 출혈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염려하였다. 그는 만일 내가 그런 상태라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마이크는 비행기의 휘발유 누출을 조사하고 화재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안 다음 내가 비행기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 주고 담요와 침낭을 주었다.

나는 얼마나 피를 흘렸는지 몰랐으며 마이크가 없는 동안 감히 잠들 생각을 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의식을 잃지 않으려고 15분마다 시계가 울리게 만들었다. 나는 서류 가방에 나의 개인 일지가 있으며 또 거기에는 5X7 크기의 가족 사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냈다. 나는 가방을 찾아 열고, 일지를 찾아 냈다. 나는 가족 사진을 보고 15분마다

일지에 적어 넣음으로써 잠에서 깨어 있었다. 마이크는 밤 11시 30분에 내 걸을 떠났다. 나는 밤새 그의 안전을 위하여 염려하며 기도했다.

새벽 3시에 수색 비행의 엔진 소리를 들었으나 새벽 5시가 되었을 때에야 한 대가 나의 후렛츠 신호를 볼 수 있을 만큼 비행기 잔해에 가까이 다가왔다. 조종사는 내 신호를 보았다는 표시로 그의 날개를 흔들었다. 틀림없이 나는 곧 구조받을 것이며 마이크가 도움을 찾아 낸 것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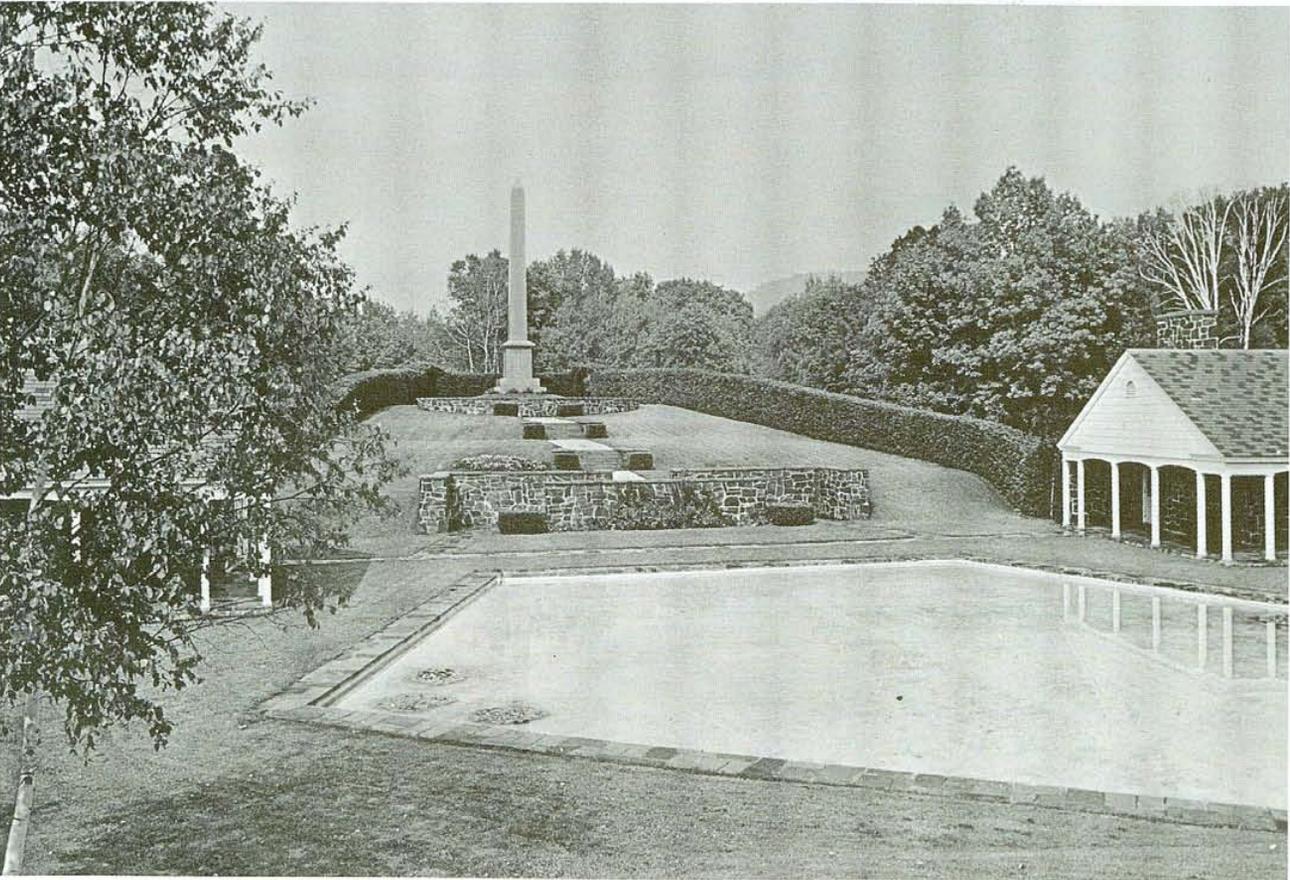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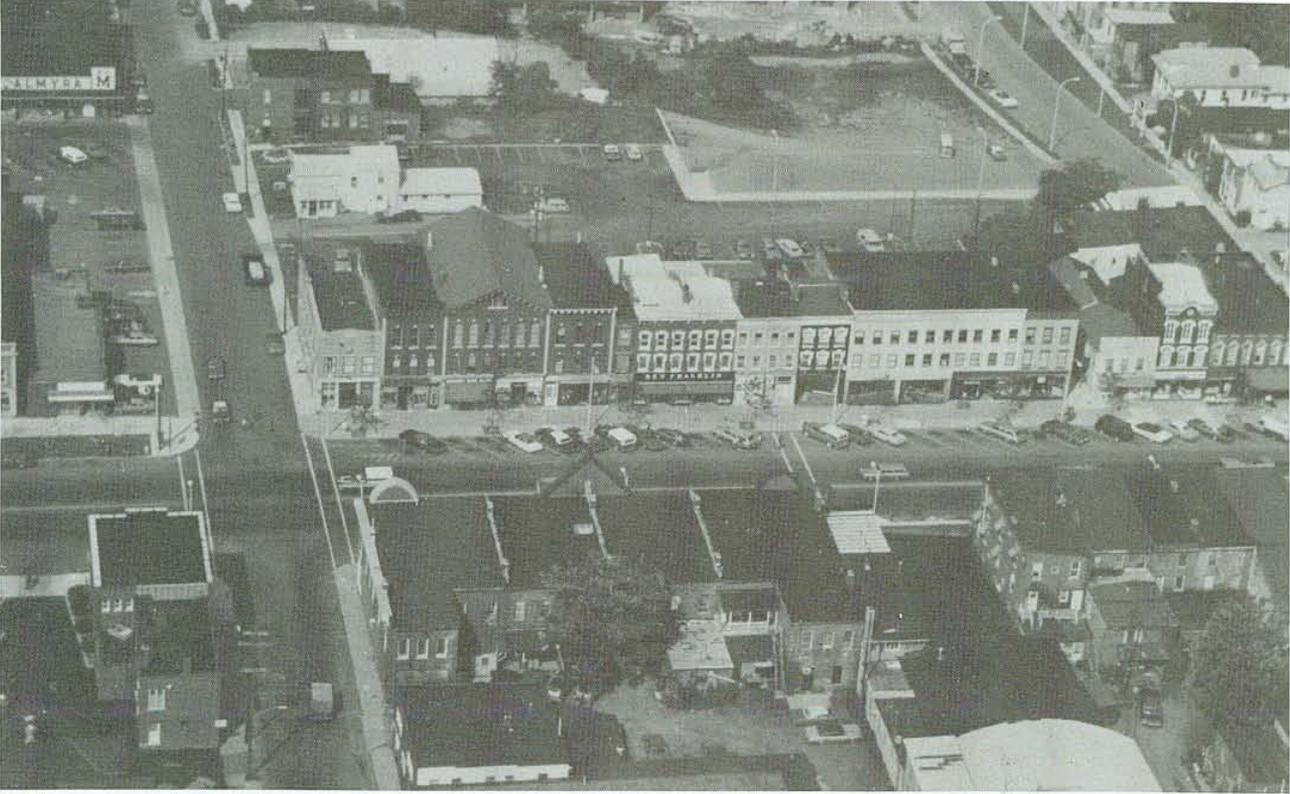
구조대와 헬리콥터가 추락 장소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로부터 4시간 후의 일이었다. 그들은 마이크를 보지도 못했고 그의 소식도 못 들었다. 그는 아침 11시가 되어서야 고속 도로를 찾아 내서 차를 얻어 타고 병원으로 갔으며, 우리는 거기에서 감격적인 상봉을 했던 것이다. 그는 구조대를 이끌고 부서진 비행기가 있는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과 나의 상태를 걱정하며 밤새도록 산을 오르고 달렸다. 그것은 진실로 형제 같은 사랑과 용기의 행동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운이 좋았으며 확률 백만분의 일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받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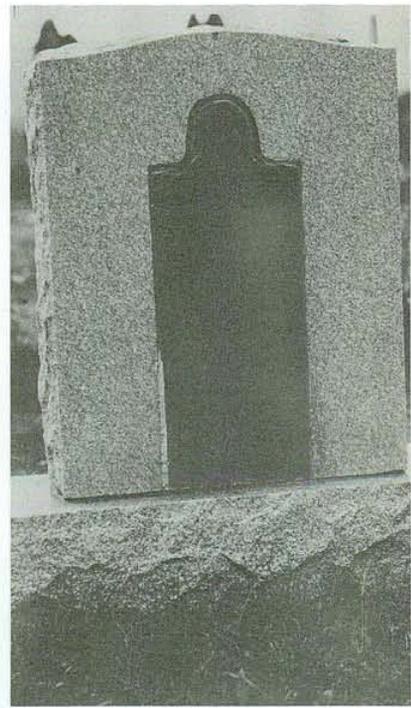
나는 그때부터 늘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까 하고 자문해 본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죽었다. 그들도 기도하고 살고 싶어했을 것을 분명히 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을 쏟으셨을까? 나는 그날 밤 부서진 비행기 안에서 밤새 이 의문에 대하여 생각했다. 나는 우리의 수명은 우리보다 더 큰 권세에 의하여 측정되어 있다는 확신을 느꼈다. 마이크와 나는 아직 우리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였으며 죽도록 정해져 있지 않았다. 나는 구조받기 전에 약 10시간 동안 주님께 감사를 표시했고 이 생명의 선물을 첫째는 우리 가족의 생활을 축복하기 위하여, 둘째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데 사용할 것을 약속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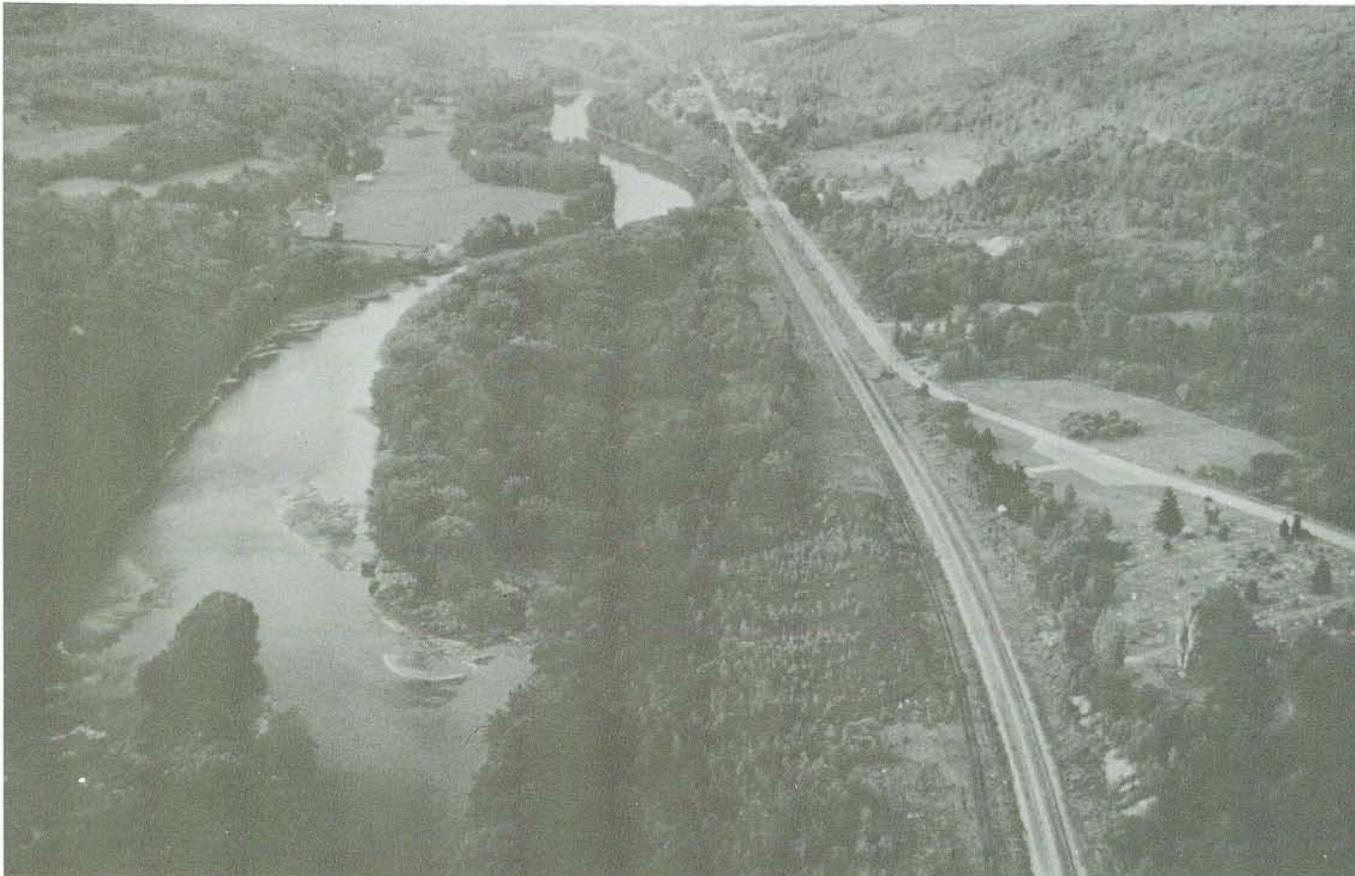
위 : 뉴욕주 팔마이라의 중심 도로. 여기서, 사진 중앙의 흰 지붕 건물 안에서 물몬경 첫판이 인쇄되었다. 12개의 흰색 틀로 된 창문이 있는 건물의 3층에 에그버트 비 그랜딘 인쇄소가 있었다. 물몬경을 인쇄한 수동 인쇄기는 현재 교회가 소유하고 있다.
아래 : 버몬트주 샤론에 있는 요셉 스미스 기념비의 모습이 방문자 센터 및 선교사 숙소 사이의 연못에 투영된다.



위 왼쪽: 현대에 복원시킨 피터 휘트머 일세의 집. 뉴욕주, 세네카군, 페이에트에 있는 이 집에서 1830년 4월 6일에 교회가 조직되었다.
 아래: 펜실베이니아주 하모니 타운십에 있는 농촌을 하늘에서 본 모습. 여기에 예언자와 엠마 스미스가 살았으며 물문경은 대부분 여기에서 번역했고 교리와 성약 열 다섯 편을 여기에서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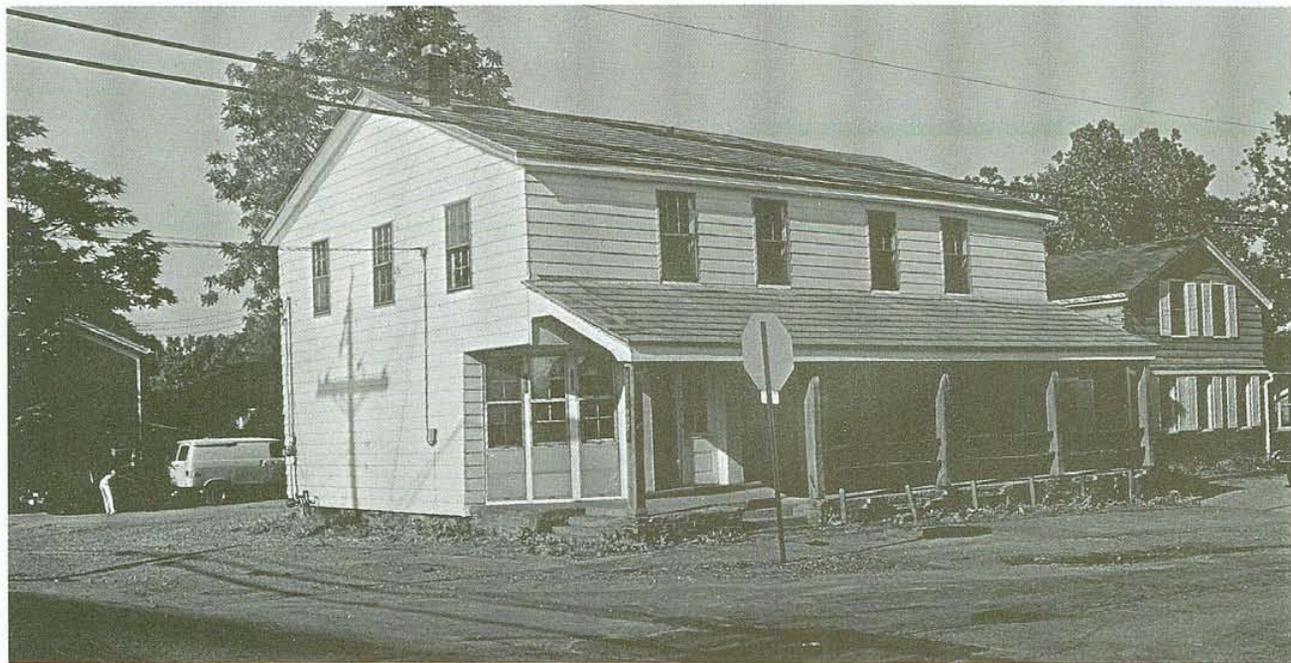


요셉과 엠마의 어린 아들의 집관암 묘석이 화강암 기념비에 부착되었다.
 그들의 9명의 자녀 중 5명이 어려서 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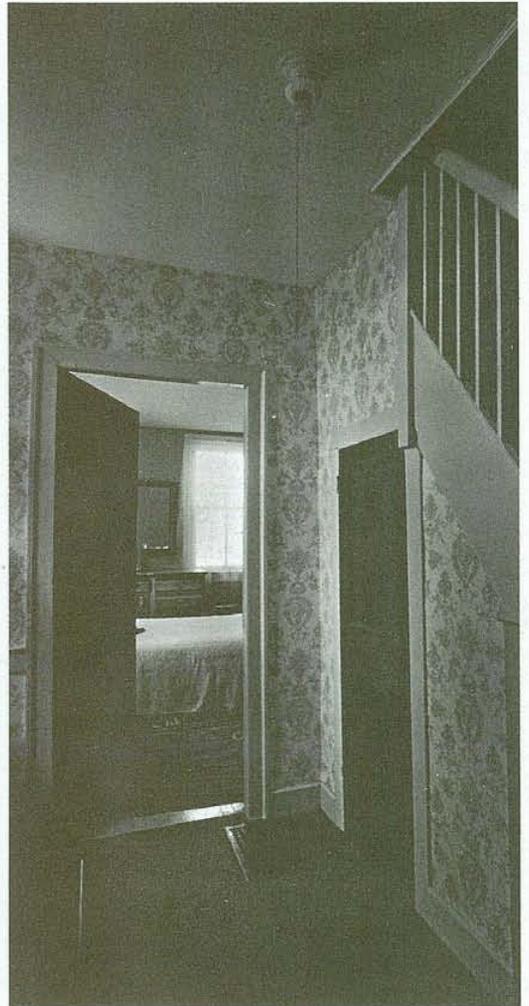


그들의 집은 오른쪽 길에 있는 회색 주차장 왼쪽에 있었다. 위 : 지금 선교사들이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뉴웰 케이 휘트니 가게에서 살고 있다. 이것은 1823년에 세워져서 예언자와 그의 가족이 1년 이상 여기에 살았다. 브리감 영은 요셉이 가게 뒤에서 장작을 패고 있을 때 그와 처음으로 만났다.

아래 : 요셉 스미스 이세와 그의 아내 루시 맥 스미스의 이 아름다운 집은 그들이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의 마지막 몇 해 동안 거주했던 곳이다. 그 집의 훌륭한 목제품 원본 가운데 일부는 아직 손상받지 않은 상태로 있다.



왼쪽: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의 뉴웰 케이 휘트니 가게 이층,
 왼쪽으로 바로 있는 문은 스미스 일가가 살던 곳과 요셉이
 번역했을 방으로 연결된다. 정면에 있는 것이 예언자의 학교로서
 여기에서 구세주의 출현을 포함하여 위대한 영적 시현이
 일어났다. 아래: 오하이오주 하이람에 있는 존슨의 집 입구 홀.
 예언자가 성경을 새로 번역하는 동안 부인과 함께 여기에 살았다.
 예언자는 바로 이 집으로부터 독도들에게 끌려 나가 타르를
 칠하고 깃털을 꽂는 폭행을 당하였다.





키틀랜드 신학교 동쪽에서 본 모습

나를 방문하는 이웃

노니 길버트



오래 기간 동안 나와 함께, 또 나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을 완전히 비밀로 지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슬취한 행동, 흡연, 험한 말,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만한 의견 등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언급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큰 사랑으로 물문에 관한 나의 폐쇄적인 태도를 이겨 냈습니다. 나는 대부분이 말일성도인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것같이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우연히 나의 방문 교사가 된 이웃이자 친구가 생겼습니다.

만일 로레인이나 레오라가 처음 방문할 때, 또는 그 이후에도 접근 방식에 조금이라도 진실하지 못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다면 더 이상 방문이 없었으리라는 것을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단지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레오라와 로레인이 우리 방문 교사가 된 지 이제 몇 해가 지났으며 내가 술에 빠진 지도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회복할 때 그 두 자매가 도와 준 모든 것을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나의 친구입니다.

그들은 결코 나를 판단하지 않았습다. 결코 나를 정죄하지 않았습다. 결코 소문을 퍼뜨려 나를 배신하지 않았습다. 그들은 영적인 메시지는 생략해 달라는 나의 요청을 항상 존중했으며 내가 다른 교회 회원으로서 매우 행복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행한 것은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로레인과 레오라로부터 인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만나든 60초 이내에 판단하는 경향을 버리게 된 것이 기쁩니다.

그러므로 나는 정식 방문 교육 공과는 거부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범을 통하여 더 높은 사랑, 인내, 관용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

자유 직업인 작가이며 4아이의 어머니인 노니 길버트는 유타 알코올 중독 재단 공보 책임자이다.

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자는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의 여성들을 나의 자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는 레오라 듀크와 로레인 스토다드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남편과 함께 유타주 파밍턴으로 이사한 직후 이 두 여성이 우리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내 기억이 옳다면 그들은 다음 이야기를 한숨에 다 이야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로레인과 레오라예요. 여러분의 이웃이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온 방문 교사입니다. 우리는 원하시는 것에 따라 영적인 메시지를 갖고 오든 안 갖고 오든 매달 방문하고 싶습니다만 우리는 당신과 가족이 안녕하신지 확인하러 오고 싶습니다.”

이때까지는 물문이 방문하는 것은 어떤 형태의 것이든 별로 좋은 경험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젊고 좀 참을성이 없는 편이었고 물문은 딱딱하고 공격적이라고 생각했으므로 이전의 방문자들은 결코 다시 와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여기 두 말일성도 여성이 완전히 온화함, 사랑, 수용, 관심을 보이며 서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들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나나 우리 가족에 대하여 염려해야 합니까?

그러나 로레인과 레오라는 분명히 염려하는 것 같았으며, 그들은 계속해서 또 왔습니다. 나는 그들이 차츰 관심을 잃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에 와도 나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다. 나는 일정이 매우 바빴으며 예측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과 완전히 나를 받아들이는 자세로 인하여 차츰 그들의 방문을 기다리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레오라와 로레인이 나를 방문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병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상당히 술을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 중독을 이겨 내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마침내 나를 때까지 여러 달 동안의

